

## 교회 출석 중고생 10명 중 4명 “교회 떠날까 고민”

목데연 ‘넘버즈 리포트’… 실제 이탈 학생 38% “예배·설교 지루·무의미”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생 10명 중 4명가량이 최근 1년 사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최근 ‘넘버즈 리포트 349호’를 발표하고 교회 청소년의 이탈 현상과 과정, 이탈 방지를 위한 과제를 분석했다. 이는 (사)꿈이있는미래와 목데연이 공동 출간한 ‘2026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에 담긴 것이다.

조사 결과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교회 이탈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그러나 교회 어른들이 체감하는 이탈 고민 학생의 비율은 사역자 19%, 교사 18%, 부모 17%로 모두 10%대에 그쳤다.

목데연은 “교회 출석 중고생의 41%는 지난 1년 사이 교회 이탈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는 교회 어른은 10%대에 불과해 현장의 온도 차가 매우 컸다”고 밝혔다.

성인이 된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한 전망에서도 교회 이탈 가능성이 나타났다. 현재 교회에 계속 출석할 것 같다는 응답은 49%, 다른 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 같다는 응답은 13%로, 교회 출석 유지 의향은 6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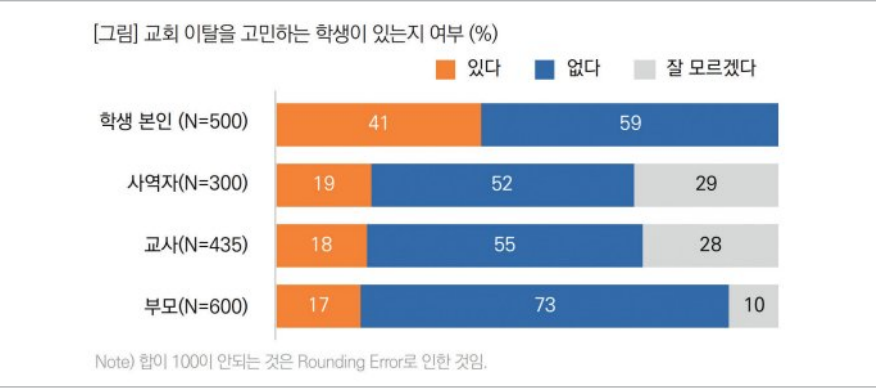
반면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할 것 같다는 응답이 22%, 다 종교로 전환할 것 같다는 응답이 3%, 무종교인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이들 ‘교회 이탈 예상군’은 전체의 37%였다.

교회 이탈을 고민했던 학생들이 그 이유를 12순위로 꼽은 결과에서는 ‘학업 부담’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예배 지루함·의미 없음’이 26%로 뒤를 이었다.

목데연은 “외부적 요인인 학업 부담 외에도 예배·설교의 의미 부재, 신앙에 대한 회의감, 고민에 대한 답의 부재 등 신앙·영적 요인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현 교회가 청소년들의 영적 갑갑함과 삶의 고민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회를 떠난 학생들이 꼽은 결정적 이탈 이유에서는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가 3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교사와 사역자들은 학생들의 이탈 이유로 ‘학업 부담’을 가장 많이 지목해 학생들과 인식 차이를 보였다.

목데연은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는 응답은 단순히 전달방식이 지루한 문제를 넘어, 설교 메시지가 학생 본인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교회 이탈 시점은 초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교회를 떠난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 1-3학년 때 이탈했다는 응답이 27%, 초등학교 4-6학년은 28%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중학교 입학 전까지 이탈했다는 응답은 77%에 달했다.

목데연은 “10명 중 8명 가까이 중학교 진학 전 이미 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 고학년 및 중학교 진학 시기에 맞춘 이탈 예방 체계와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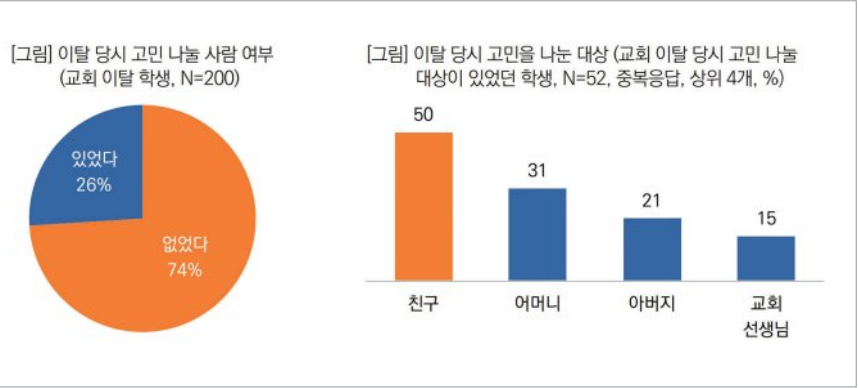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진 때부터 실제 이탈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74%였다. 목데연은 “4명 중 3명은 교회 이탈까지 1년이 채 안 걸린 셈”이라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실제 이탈

로 이어지는 현상은 아이들이 교회에 마음 둘 곳, 즉 친구·교사·사역자 등이 부재하거나 적극적인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교회를 떠날 당시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74%는 ‘없었다’고 답했다. 고민을 나눌 대상은 친구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선생님은 15%였다.

목데연은 “청소년들이 교회 이탈이라는 중대한 고민을 할 때 영적·정서적 멘토가 되어줄 교회 내 어른과의 소통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탈 당시 사역자나 교사의 심방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67%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다. ‘1-2번 있었다’는 21%, ‘3번 이상 자주 있었다’는 12%였다.



심방을 받은 학생 가운데 주된 내용은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질문하고 다음에 나오라고 했다가 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 나오는 이유’를 듣고 공감해 주었다 20%,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신앙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18% 순이었다.

목데연은 “심방이 이루어지더라도 깊이 있는 공감이나 영적 고민 해결보다는 단순한 출석 독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교회 이탈 의향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교회를 떠나지 않은 학생들이 꼽은 이유는 ‘부모님·가족이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가 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회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21%, ‘임원 등 맡은 역할이 있어서’ 16% 순이었다.

목데연은 “가정과 친구 관계가 학생들

의 교회 이탈을 막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변화해야 할 점으로는 ‘친구들과의 친밀감 형성’이 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소년들의 삶의 고민을 다루는 현실적인 설교·교육’ 29%, ‘신앙적 의문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27%,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위기’ 27%였다.

목데연은 “청소년의 교회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설교의 개선과 함께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삶의 고충과 신앙적 고민을 다루는 교육과 토론의 장을 구축하는 것이 교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2026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 개최

9~13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프레스센터 등서 개최

세계 곳곳의 군사적 긴장과 기후위기, 한반도 분단과 갈등 속에서 세계 교회가 평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2026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가 9월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개최예배에서는 제리 필레이(Jerry Pillay)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주제로 설교했다. 필레이 총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필레이 총무는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폭력, 기후위기와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이러한 극심한 상처 속에서 교

회가 침묵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우리에게 화개와 변혁, 그리고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라진 한반도의 치유와 평화공존, 나아가 세계 분쟁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세계 교회가 끝까지 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회예배에 참석한 국내외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인 정훈 목사는 “군사적 폭력이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AI의 발전이 공공선을 위협하며, 네 팔 등 기후 불평등 피해가 심화하는 시대”라며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신 만큼 사랑과 연대의 수고로 전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가 열리고 있다. ©노형구 기자

쟁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을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CCA) 총무 문정은 목사는 “인간 존엄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복음은 교회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분단 해결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의 공동 과제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화개와 용서를 통해 화해의 길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시작된 남북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처럼, 평화체제 실현을 통해 증오와 적개심의 굴레를 끊어나가 한다”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세계 교회가 지속적으로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훈 NCCK 회장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그 다음 뒷줄 왼쪽부터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한국정교회 대주교,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제리 필레이 WCC 총무, 문정은 CCA 총무. ©노형구 기자

김강환 대한성공회 대주교는 “참 평화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자유가 존중되는 민주사회에 근간을 둔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교회가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아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NCCK·WCC·CCA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3일까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과 비무장지대(DMZ) 일대 등에서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DMZ 평화순례와 국제회의를 거쳐 ‘서울 평화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명예이사장 별세

국내 장기기증 운동 길 개척... “마지막까지 모든 것 나누며 영면”

(재)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이하 본부) 박진탁 명예이사장(사진)이 8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본부에 따르면 노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이사장은 이날 새벽, 심정지로 영면에 들었고 10일 오전에는 생전 뜻에 따라 의학발전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강조하며 1991년 본부를 창립하고, 본부 이사장(2014~2025)을 지낸 고인은 한혈 및 장기기증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 의인상, 영국봉사대상, 한신상 등을 수상했다.

일생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한 그는 생전 시 신장기증을 실천한 후 사후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 시신기증을 약속했으나 고령으로 인해 시신기증 외에 다른 기증의 뜻은 이루지 못했다.

1991년 1월 24일, 박 이사장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타인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신장 하나를 기증했다. 당시 국내 최대 한혈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박 이사장은 1968년 우석대학교 병원(現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원목으로 있던 때에 한 행려환자를 위해 첫 한혈을 실천한 뒤 본격적인 한혈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피를 사고파는 매물이 사라지고 한혈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때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그는 한 교민이 뇌사 상태가 되어 장기기증을 실천하는 모습

을 곁에서 지켜봤다. 피뿐 아니라 몸속 장기까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박 이사장은 곧장 귀국해 자신이 먼저 신장 하나를 기증하며 국내 장기기증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국내에서 장기매매가 성행하던 1991년, 생전 시 신장기증을 결심한 그를 향해 주변에서는 무모한 일이라며 만류가 이어졌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곧장 행동으로 옮겼던 박 이사장은 “내가 며칠간 고통을 견디면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데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묵묵히 기증을 준비했다.

이후 그의 실천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박 이사장이 국내 최초로 순수 신장기증을 실천한 1991년에만 23명이 그의 뒤를 이어 신장을 기증했고, 지금까지 본부를 통해 969명이 타인을 위해 신장을 기증했다. 박 이사장의



뇌사 장기기증인 양희찬 상병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박진탁 이사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군부대 등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이 확산되며 120만여 명이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박 이사장은 국내에 장기기증 운동을 정착시키며 제도와 문화 개선 등에도 큰 기여를 했다. 장기매매 근절에 목소리를 내며 2000년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섰고, 긴급 상황 시 장기기증 의사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그의 노력으로 2007년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1년에는 본부에 유산 기부 1억 원을 약정하며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움의 손길도 내밀었다.

고인의 장례식은 본부 법안장으로 8일부터 엄수되며 빈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은 10일 오전 11시이다. 김진영 기자

## 예장 합동중앙 제60회 총회... 권필수 목사 총회장 연임

총회 이따자 목사직 제명·총회 사무실 매각 등 결의

예장 합동중앙(총회장 권필수 목사)이 최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강당에서 ‘평안하여 듣든지 서기는 교회를 세우리’ (행 9:31)는 주제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선거에서는 지난 회기 임원들이 대부분 유임됐다. 이에 따라 총회장 권필수 목사가 연임하게 됐다. 나머지 임원 명단은 △상임총회장 김경에 목사 △부총회장 김복아·김수만·이희순·전영주·정정환·윤동산·최길준·박현경 목사 △서기 강득상 목사 △부서기 구명숙 목사 △회의록서기 임옥경 목사 △부회의록서기 전양호 목사 △회계 김준남 목사 △부회계 유정임 목사 △총무 이승진 목사 △부총무 민명숙 목사다.

또한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논의해 의결했다. 우선 ‘총회 결의 없이 세상 법에 소송을 한 자는 목사 제명한다’는 총회규칙에 따라 총회를 이탈한 이들을 목사직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총회 회의록에 등재하고 각 노회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총회 사무실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기존 급여직이었



예장 합동중앙 제60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종남 목사(오른쪽)가 제60회기 신임 총회장직에 연임된 권필수 목사(왼쪽)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던 사무국장은 봉사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거 함께했던 총회와 신학교가 현재 분리됨에 따라 사무국장 업무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인천 영광노회와 서울21세기총신노회 설립을 하락했다.

총회에 앞서 강득상 목사(서기)의 인도로 드린 개회예배에선 부총회장 김복아 목사가 기도했고, 부총회장 윤동선 목사의 성경봉독 후 서옥임 목사(전 총회장)가 ‘선약과보다 생명나무를 바라보자’(창 2:7-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서 목사는 “지식이 신이 되고 정보가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식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야 할 때”라며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총회는 지난해 신학목회연구원 제3대 학장으로 취임한 김복아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강효이 목사(설립 승계자)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에는 김영숙 목사(전 총회장)의 집례로 성전식을 진행했다. 김진영 기자

##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한 나라가 따라왔다”

프란체스카 도너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모노극 《Dear Korea》, 9월 23일 비유아트홀 개막

대한민국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리의 삶을 한 여성의 시선으로 조명하는 모노극 《Dear Korea》가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비유아트홀에서 공연된다.

《Dear Korea》는 대통령 영부인의 일대기를 나열하는 전기극이 아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가 꿈꾸던 나라를 만나고, 결국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나라를 자신의 조국으로 선택했던 한 여성의 기억을 따라간다.

공연은 1992년 이화장, 노년의 프란체스카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한다. 짧은 질문 앞에서 프란체스카는 오래된 타자기와 편지를 꺼내 한 젊은이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편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대한민국을 향한 기억으로 이어진다.

시간은 1933년 스위스 제네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연맹 회의 기간 중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을 만난다. 지도에서조차 쉽게 찾을 수 없던 ‘Korea’라는 나라,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조국의 독립을 확인하는 한 남자. 프란체스카는 그의 눈을 통해 처음으로 코리아를 바라본다.

이후 작품은 나라 없는 남자와의 만

남, 독립을 꿈꾸던 망명객과의 결혼, 낯선 땅에서 ‘이부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탄생과 전쟁, 419와 하야, 하와이에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선택한 귀환까지 프란체스카의 삶을 따라간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는 아니지만, 자신의 남은 생을 모두 내어준 나라. 프란체스카의 기억을 따라 작품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본다.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한 나라가 따라왔다”

《Dear Korea》가 주목하는 것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 자체보다 그 역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살아낸 한 인간의 선택과 사랑이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사랑은 어떻게 한 나라를 향한 사랑이 되었는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는 아니지만 남은 생을 함께한 나라를 프란체스카는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작품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프란체스카를 역사적·정치적 상징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기다리고 상심했던 한 인간으로 무대 위에 불러낸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관객에게 질문을 건넨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한 여성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현대사

《Dear Korea》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생애 자체를 중심으로 재현하기보다, 프란체스카라는 한 여성의 기억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장면들을 바라본다.

독립을 위해 세계를 떠돌던 망명 시절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전쟁,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하와이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까지,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들 사이에 존재했던 한 부부의 삶과 프란체스카의 선택이 모노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펼쳐진다.

프란체스카 역은 배우 김신실이 맡아 70분간 인터미션 없이 무대를 이끈다. 극작은 루크박, 연출은 박문수가 맡았다.

《Dear Korea》는 ‘햇김에 박문수 프로젝트’가 제작한다. 프로젝트는 《Dear Korea》를 통해 자신들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는 가치와 인물을 공연예술의 언어로 무대 위에 풀어내며,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한국동서발전주

# 해외선교비 증여세 과세 위기에 대응 방안 모색

## 한교총, 세법 시행령 재개정 및 대응 공청회 개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재개정 및 법 적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과세 당국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선교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위험이 불거지면서,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활동 전반에 심각한 위축과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과세 당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종전 공익법인 및 종교 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외국 법안·비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 사업'과 '외국 소재 소속 단체가 제외되고 '비영리 내국법인거주자'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로 전면 제한됐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사나 외국 선교 기관, 현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해외 선교비가 공익 목적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신천지가 해외 지부에 85억 원을 송금한 건에 대해 대법원이 2025년 5월 "종전 규정상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과세 당국이 자금 유출 방지 범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교계는 이로 인해 불거진 개정 조항으로 제3세계 의료·교육 및 국위 선양에 기여해 온 정통 교회의 해외 선교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적용 유예 및 재개정, 비과세 특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헌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영근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한교총 세정대책위원회)가 발제자로 나서 입법적 배경과 현장 세무 대응 지침, 대관 협상 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

헌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세 당국의 입법 배경과 현실적 한계를 짚는 한편, 교회가 준비해야 할 향후 선교비 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과세 당국은 해외 외국 단체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해외 선교비가 국내 국가 공익에 기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외로 송금된 자금의 공익 목적 사용 여부를 사후 검증·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개정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2025년 5월 신천지의 해외 송금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과세 당국이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통 교회의 해외 선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정부 및 기획재정부 측과의 협의 경과에 대해 "시행령이 지난 2월 이미 공포되어 법적으로 시행 중단을 명시하는 자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통 선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 집행과 과세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했다"며 "정부 역시 해외 선교를 발미로 한 이단의 자금 세탁은 막아야 하나 법문에 '이단'을 명시할 수 없어 기존 마련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 파급효과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음을 한교총 측에 전달해 왔고 2-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교비 집행의 실무 대안으로 "선교사 사례비와 활동비의 경우, 파송 교회나 선교 단체 소속 종교인으로 소득세(종교인 소득)를 신고하면 상증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학교병원 건립 등 프로젝트성 지원금은 개별 교회나 개인이 직접 해외로 송금하기 보다는, 교단별 선교법인 또는 초교파적 선교법인을 통하여 투명하게 지급하는



김철훈 한교총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3세계 현지 특성상 증빙 자료 구비가 어려우므로 정밀한 사용 내역서 작성 등 최소한의 사후 관리 관리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세무 실무 현장의 한계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장통합 소속 장로인 김진호 세무사는 현장 집회에서 "선교사 한 명이 여러 교회로부터 다단 지원을 받는 구조에서 개별 교회의 소득세 신고는 모호함이 있고, 소득세 및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될 경우 약 20% 이상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 귀국 후 퇴직금 지급 의무 등 재정적 부담이 급증한다"며 "단순 소득세 신고 방식으로 귀결되기보다는 현장 선교사의 특수성과 교단 집계 시스템을 고려한 과세 관청과의 세밀한 추가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여진 발표에서 김영근 회계사는 정부 당국의 현장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교회가 당장 현장에 적용해야 할 선교 자금 지출 구조 세분화 방안과 정부 협의체(TF) 대관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김 회계사는 "실제 국세청은 해외 선교 활동의 유형이나 자금의 흐름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번 세법 개정도 기독교 선교의 공익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잘 반영되지 않은 채 급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교회가 증여세 과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교비를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첫째, 선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기 사례비(가족생계비, 생활비, 사택 유지비, 자녀교육비, 휴가비, 차량·휴대폰 지원비, 상여금 등)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여 연발정산 처리함으로써 상증세법상의 증여세 이슈를 차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둘째, 선교 활동비는 여비교통비, 비자수수료, 숙박·정착비, 건강·품위유지비, 선교연구·도서비, 비품·장비비, 소액 구제지원비 등 8~9개 계정과목으로 세분화한 뒤 정관을 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에 따른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선교사의 거주자 판단은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가족자산의 국내 소재 여부를 고려해 일단 국내 거주자로 신고한 뒤 전문가의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헌재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세 번째 유형인 해외 프로젝트 및 현지 단체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회계사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종교단체가 설립·미설립한 해외 종교단체, 임의단체, 비거주자, 현지 자선단체, 혹은 국내 NGO(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를 통한 우회 지출 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직접 노출된다"며 "현지 구제·의료·교육 사업 등 프로젝트성 지출 역시 종교 목적 지출로 인정받도록 정부 협의체(TF)를 통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근 회계사는 오는 11월까지 한교총은 정부와의 협의체(TF) 구성을 통해 확정 지을 6대 사후관리 협상안과 세법 재개정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 발언을 이어갔다. 김 회계사는 "첫째, 공인 교단 산하 선교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일괄 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공인된 교단의 보증은 전제로 개별 선교사나 현지 단체에 대한 과도한 사후검증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해외선교비에 한해 전용계좌 사용을 수용할 방침"이라며 "선교비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종교 활동이나 국내 교회 재정 전체로 과도한 금융 규제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증빙 절차 간소화 대안에 대해 김 회계사는 "셋째, 해외 회계자료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간소화 절차를 통해 일괄 인정받도록 추진하겠다"며 "넷째, 현지 사정상 영수증 등 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김영근 회계사가 발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위험 지역이나 현지 임의단체의 경우 공인 교단의 공식 보증을 통해 비과세를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접 지출에 대한 세법 명문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다섯째, 현지 NGO 및 비종교 단체를 통한 간접 해외선교 지출 역시 종교 목적 지출로 인정받도록 세법 개정안에 분명히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회계사는 로드맵을 설명하며 "여섯째, 2026년도 지출액에 대한 국세청 과세 유보를 이끌어내는 한편 9월 말까지 정부와 공동 협의체(TF)를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이 같은 사후관리 대안을 최종 모색해 11월 말 세법 개정안 마련과 함께 적용 2-3년 유예 조치를 확정 짓겠다"며 "정부도 해외 선교 구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미지의 상태인 만큼,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여진 질의응답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개인 생활비와 교회 개척, 구호 교육 등의 사업비가 한 선교사 계좌에 함께 집행되는 것이 보통인데 정부 측의 현행 설명만으로 과세와 비과세의 경계를 현장에서 적합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영근 회계사는 "정부가 선교 현장에 대해 아주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저희들이 관철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형구 기자

## 과천 4대 종교, 12일 중앙공원서 생명 존중·자살 예방 캠페인

### 과천시자살예방센터와 공동 진행… 무료 정신건강 검진·상담 진행

경기 과천 지역 4대 종교단체가 시민의 정신건강을 살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오는 12일 과천시 중앙공원에 서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와 함께 생

명 존중 연합 캠페인을 개최한다.

시민들은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정신건강 검진과 전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과천교회, 안

면암 포교당, 별양동성당, 원불교 과천교당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는 공통의 사회적 과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정신건강 검진과 자살 예방 인식 조사를 진행한다. 검진·상담 결과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센터의

전문 상담치료 서비스로 즉시 연계하고, 인식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향후 지역 자살 예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다양한 체험으로 전하는 생명 존중과 돌봄의 가치

시민들이 생명 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센터 부스에서는 카펫 열쇠고라에코백 만들기과 4컷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자살 예방 영상을 상영한다.

종교별 부스에서는 상생과 돌봄의 메시지를 담은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 과천교회는 비누 만들기, 별양동성당은 스칸디아 모스 키우기, 안면암 포교당은 오색팔찌 만들기, 원불교 과천교당은 원만인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생명 존중 연합 캠페인은 행사 당일 과천 중앙공원을 찾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소 우울감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행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과천시자살예방센터에서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나래 기자

ASHANIA

K-뷰티 혁신을 바탕으로 피부를 밝히고, 탄력을 더하며,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줍니다.

Powered by K-Beauty Innovation to Brighten, Firm, and Restore Your Natural Glow.

ASHANIA 홈페이지  
https://ashania.com

ASHANIA  
NECK FIRMING  
SUPER VITAL DAY & NIGHT CREAM  
PEPTIDE | ADENOSINE | HYALURONIC ACID  
TIGHTENING • ANTI-AGING  
HYDRATING • NOURISHING  
1.7 FL. OZ. 50ML

ASHANIA  
DARK SPOT  
CORRECTOR CREAM  
WITH COLLAGEN  
MULTI-BLEND EFFECTIVE FORMULA  
CONCENTRATE  
1.7 FL. OZ. 50ML

ASHANIA  
DARK SPOT  
CORRECTOR CREAM  
WITH COLLAGEN  
2 FL. OZ. 60 ML

ASHANIA  
DARK SPOT  
CORRECTOR CREAM  
WITH COLLAGEN  
2 FL. OZ. 60 ML

#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위한 ‘회개기도성회’ 열린다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을 위한 ‘회개기도성회’가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 인천시 부평구 삼광비전센터 5층 성전에서 열린다.

(사)민족복음화운동 부천본부가 마련한 이번 성회는 ‘열매와 심판’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와 목회자·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기도를 통해 복음화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3장 9절의 “이 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

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이다.

특히 이번 성회는 단순한 일회성 기도 집회를 넘어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강사로 나서는 이기도 목사는 어영세 계선교회 대표이자 주 예수이름교회 담임,



(사)민족복음화운동 부천본부 대표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 목사는 ‘열매와 심판’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신앙이 외형적인 고백이나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성회에는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와 삼광비전기도원 원장 심원용 목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와 목회자, 성도들이 함께하며 2027년 민족복음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하나의 대형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복음화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와 기도에서 시작됐다.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불을 붙여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맞는 2027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2027년 대성

회의 핵심은 과거의 부흥을 기념하는 데 있지 않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계승하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향한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는 데 있다. 이번 회개기도성회가 그 영적 불씨를 다시 지피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이번 성회를 ‘회개와 구원과 치유와 축복의 자리’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누가복음 3장 9절을 중심으로 개인의 회개를 넘어 목회자와 교회, 한국교회 전체의 갱신과 민족적 회개,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이번 회개기도성회를 통해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가 단순한 조직 확대나 행사 준비를 넘어 ‘회개→기도→성령의 역사→전도와 복음화→민족적 부흥’으로 이어지는 영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사)민족복음화운동 부천본부는 대표본부장 이기도 목사를 중심으로 지역교회 및 목회자들과 연대해 회개기도운동과 전도·복음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 2026 YNC MISSION EXPO 선교대회 일정

9월 6일(주일)부터 9월 19일(토)까지, 주 강사 김바나바 목사, 김한요 목사,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2026 YNC Mission Expo(미션 엑스포)’를 열고, 세계 선교 현장과 지역교회를 잇는 선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여기에서 땅끝까지(FROM HERE TO THE END)’다. 선교를 일부 선교사들의 사역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모든 성도가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시작해 지역사회와 세계

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북미 및 중남미 등 17개국에서 사역하는 파송협동 선교사 39명과 선교사 자녀 12명이 참석한다. 선교사들이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교회가 선교 현장을 보다 가까이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미션 엑스포는 선교보고만 듣는 행사에 머물지 않고 새벽집회와 특

강, 대륙별 선교보고, 저녁집회, 선교사 가족과의 만남 등을 촘촘하게 배치했다. 선교 현장의 필요를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 각자가 자신의 삶과 신앙 안에서 선교적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일부터 12일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를 주제로 특별새벽집회가 열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시작되며 참석 선교사들이

직접 말씀을 전한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선교 현장의 실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시간이다.

대회 일정은 매일 ‘연합’, ‘교제’, ‘열정’, ‘회복’, ‘결단’, ‘위로’, ‘비전과송’이라는 주제를 따라 이어진다.

7일은 ‘연합’을 주제로 사무엘 마펏 선교사의 묘원을 방문했다. 한국 선교 역사와 연결된 선교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오늘의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오후에는 지역 탐방이 진행됐다.



8일에는 ‘교제’를 주제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아시아권 선교보고가 이어졌고, 저녁에는 선교교회와 선교사들이 직접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9일부터는 특강과 대륙별 선교보고, 저녁집회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9일 ‘열정’을 주제로 한 일정에서는 AEU 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이 오전 특강을 맡았다. 오후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선교사들이 사역 현장을 보고했고, 오후 7시 저녁집회에서는 퀸즈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10일은 ‘회복’을 주제로 AEU 미성대학교 김의진 교수가 오전 특강을 인도하고, 오후에는 아시아 지역 선교보고가 진행됐다. 저녁집회 강사는 베넬교회 김한요 목사다.

11일에는 ‘결단’을 주제로 CPU AI설교원 구소장 이세영 교수가 특강을 맡는다. 오후에는 북미와 중남미 지역 선교보고가 이어지고, 저녁집회에서는 박은성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12일은 ‘위로’를 주제로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한 만남의 시간이 마련된다. 선교의 성과나 사역 보고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타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사역해 온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교회가 직접 품고 격려하는 자리다.

13일 주일에는 ‘비전과송’을 주제로 3부 예배에서 폐회예배를 드린다. 세계 각지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성도들이 다시 자신의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로 파송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번 미션 엑스포의 주 강사로 김바나바 목사와 김한요 목사, 박은성 목사가 나서며, 이상훈 총장과 김의진 교수, 이세영 교수가 특강을 맡는다.

이번 미션 엑스포는 선교의 출발점을 ‘먼 곳’이 아닌 성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찾는다. ‘여기에서 땅끝까지’라는 주제처럼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복음의 삶이 세계선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회의 취지다. 김민선 기자

## 4개 교회 연합 기독 청년 연애 세미나 ‘우다연’ 성료

무학교회, 새문안교회, 창동염광교회, 충신교회 등 4개 교회 청년부가 공동 주최한 연합 연애 세미나 ‘우다연(우리, 조금 다르게 연애해볼까?)’이 지난 5일 무학교회 비전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별 교회 내 이성 교제에 부담을 느끼는 기독 청년들을 위해 공교회 차원에서 기획됐다. 단순한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넘어, 확립된 세상의 연애 방식을 탈피하고 신앙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교제를 맺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다. 기독교 문화 사역팀 ‘위러브(WE LOVE)’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4개 교회 청년 60여 명이 참석해 진솔한 교제를 나눴다.

이날 오전 프로그램은 인플루언서 배다해 씨의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배 씨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먼저 갖추고 준비할 것”을 권면했다.

오후에는 실질적인 연애관 정립을 위한 두 차례의 워크숍이 90분씩 이어졌다. 박준하 목사가 인도한 첫 번째 워크숍은



배우 배다해 씨(왼쪽)가 강의하던 모습. ©우다연

사랑의 언어 진단과 밸런스 게임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어 최현일 목사가 이끈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앙과 스킨십, 우선순위, 갈등 해결 등 크리스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비슷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또래들과 고민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크리스천으로서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연애를 해야 할지 명확히 정리됐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 연애관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무척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첫 연합 사역을 성황리에 마친 4개 교회 교역자진은 오는 10월 사역 평가와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한 모임을 진행한다. 아울러 11월 중순 이후에는 후원사인 위러브와 협력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만남을 돕는 ‘로테이션 데이트’ 행사를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 기독교선교햇불재단, 2026년 2학기 햇불회 9월 개막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이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8주간 ‘2026년 2학기 햇불회를 개최한다.

햇불회는 지난 40여 년간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 이어져 온 대표적인 영적 훈련 및 계속교육 공동체다. 현재 해외 선교사를 포함해 약 3,900명이 등록하여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학기는 참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는 동시에, 유튜브 채널 ‘햇불재단 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송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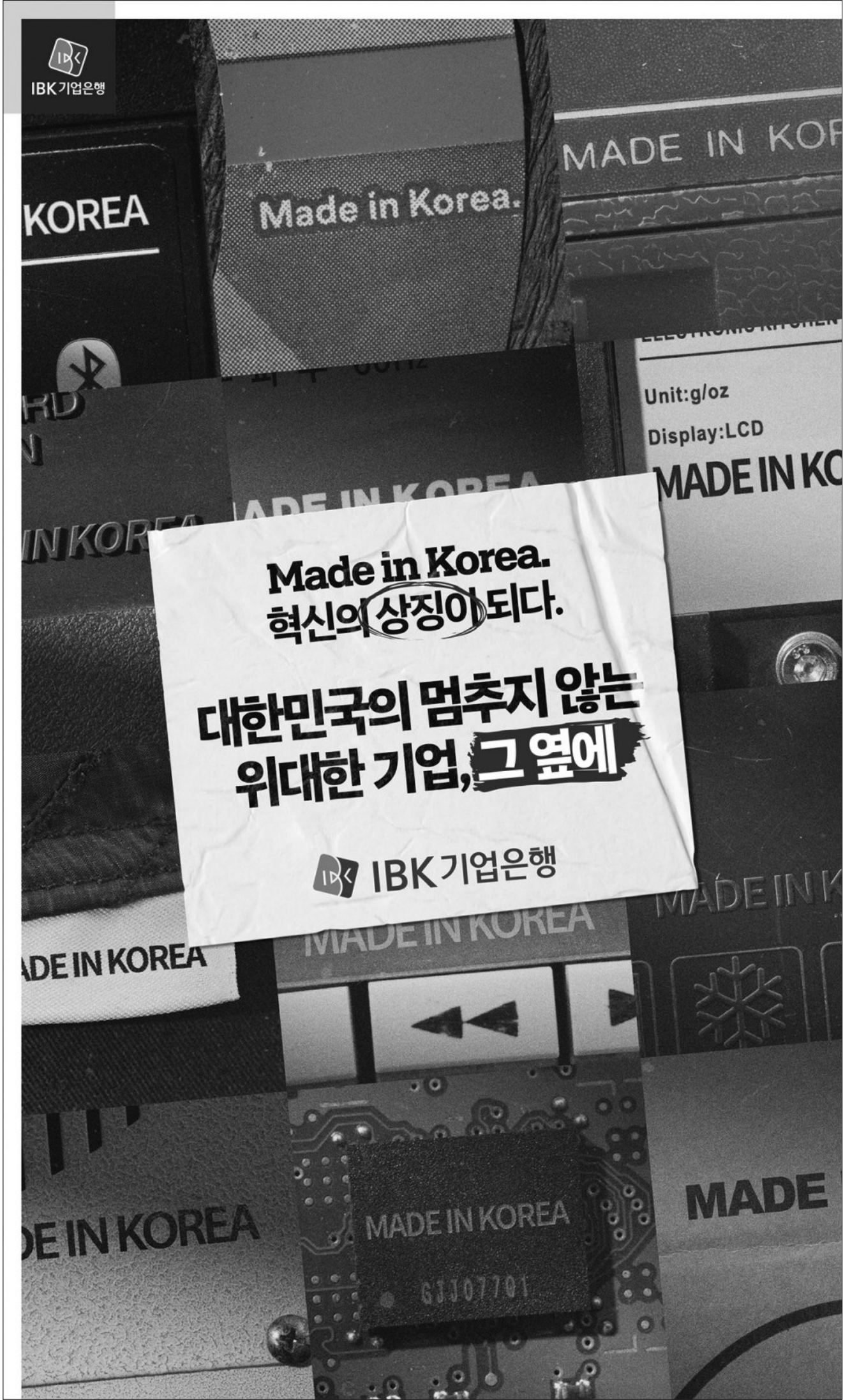
목회자, 선교사, 사모, 신학생 등 크리스천 리더라면 누구나 등록비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은 행사 기간 중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올 하반기 햇불회의 주제는 ‘새 시대, 새 부대 -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New Era, New Army - Rise Up Soldiers of Christ)’로 선정됐다. 디모데후서 2장 3-4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아 참석자들을 영성, 지성, 인성을 두루 갖춘 리더로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

재단 측은 인공지능(AI)과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가치, 신

앙 인식까지 급변하는 오늘날,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조직보다 ‘준비된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주제에서 언급된 ‘새 부대(New Army)’는 단순한 새로운 방법론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철저히 훈련되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낼 ‘그리스도의 군사’와 그 공동체를 의미한다.

한편, 햇불재단은 이번 햇불회를 통해 목회자 훈련에 그치지 않고 사역의 범위를 소그룹 모임, 지역 선교, 나아가 디아스포라 연대까지 폭넓게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 프랭클린 그레이엄, 10월 맨체스터 전도집회… 지역 600여 교회 동참

젊은층 신앙·삶의 의미 관심 커지면서 지역교회들 초청·상당 준비

미국 복음전도자 프랭클린 그레이엄(Franklin Graham)이 오는 10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대규모 전도집회를 연다.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의 약 600개 교회가 성도들의 초청과 현장 상담 등을 준비하며 이번 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hristian Today)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BGEA)는 ‘갓 러브스 유 투어(God Loves You Tour)’를 오는 10월 3일 맨체스터 코옵 라이브(Co-op Live) 아레나에서 개최한다.

지역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가족과 친구,

이웃을 초청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집회에서 복음 메시지에 반응하는 참석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 훈련도 진행해 왔다.

BGEA에 따르면 이미 수천 명이 집회장으로 가는 무료 버스 좌석을 예약했다. 버스는 맨체스터 인근뿐 아니라 남웨일스 스완지 등에서도 운행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그레이엄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며, 그래미상을 세 차례 수상한 마이클 W. 스미스와 예배 인도자 채리티 게일, 영국 기독교 래퍼 페이스 차일드가 찬양과 공연으로 함께한다. 입장은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 티켓도 필요하지 않다.

이번 맨체스터 집회는 2022년 영국에서

‘갓 러브스 유 투어’가 시작된 이후 9번째 집회다. 그동안 런던과 리버풀, 버밍엄, 글래스고, 셰필드 등 주요 도시에서 전도집회가 열렸다.

그레이엄에게 맨체스터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의 부친인 고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가 1961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레이엄 목사는 “맨체스터에서 설교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아버지가 65년 전 설교했던 곳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밝혔다.

또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수십 년간 맨체스터는 크게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와

전 세계적인 하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실재인지 묻고 있다”며 “진리는 존재하며,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최근 맨체스터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앙과 삶의 의미, 목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비 교회 맨체스터(Ivy Church Manchester) 담임 앤서니 딜레이니(Anthony Delaney) 목사는 교회를 찾는 젊은이들 가운데 “의미와 소망, 소속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미디어와 물질주의, ‘나 먼저’라는 문화가 삶의 가장 깊은 질문에 답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해질 때 젊은이들은 귀를 기울인다”며 “우리는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맨체스터에 기반을 둔 자선단체 리디밍 아이 커뮤니티스(Redeeming Our Communities)의 창립 이사 데브라 그린(Debra Green)도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소속감, 정체성, 소망에 관한 질문을 품고 있는 시점에 이번 집회가 열린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또 “맨체스터에 가장 필요한 것



지난해 런던에서 설교하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BGEA

은 소망이며, 우리가 인생을 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며 이번 집회가 “당신은 사랑받고 있고 잊혀지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최근 수년간 영국과 유럽에서의 전도 사역에 비중을 높여 왔다. 그는 세속화와 문화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해 5월 베를린에서 열린 BGEA 전도대회에서도 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두려워하지 말

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영국에서 열린 최근 집회에도 많은 인원이 몰렸다. BGEA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엑셀 런던(ExCeL London)에서 열린 집회에는 약 1만5천 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으며, 정원 초과로 약 2천 명이 입장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수백 명이 그레이엄 목사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맨체스터 집회 역시 대형 집회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지역교회들이 사전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다시 지역교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유진 김 기자

##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인천서 개최

미주 20개 협의회 자문위원

750여 명 참석...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연대·실천 다짐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미주지역회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지역 20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75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해외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는 이재수 미주부회장의 개회사와 강창일 수석부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방용승 사무처장의 업무보고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의 정책 설명,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협의회별 정기회의와 원탁토론을 가진 뒤 지역협의회별 자체 활동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수 미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지 주민과 정계사회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미국과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수석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만큼 앞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는 평화통일이라고 밝혔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업무보고에서 제22기 민주평통의 주요 활동을 설명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국제적 연대 앞장서 달라”

지난 2일 미주지역 20개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화공존 정책대화’에서는 민주평통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떠날 때 나라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도리어 고국을 지켜주셨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고 긴장 요인을 줄이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와 함께 제도와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위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애틀협의회, 자문위원·동반자 약 75명 참석

이번 제22기 미주지역회의에는 자문위원 약 750명이 참석했다. 시애틀협의회에서는 황규호 협의회장과 손석근 지회장, 송영욱 지회장, 이수잔 상임고문단장, 김순아 간사 등을 비롯해 동반자를 포함한 약 75명이 함께했다.

제22기 미주지역회의의 슬로건 공모에서는 시애틀협의회 오미아 자문위원이 ‘미주 동포의 하나 된 목소리, 한반도 공동성장의 시작’을 제출해 특별상을 받았다. 황규호 회장은 “이번 미주지역회의는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을 나누고, 해외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며 정립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애틀협의회 자문위원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소통과 단결을 통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함께 나누는 생각과 경험, 그리고 다시 확인한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를 앞으로 시애틀협의회와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와 재외동포 사회 안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일정 후 월미도 역사 탐방과 워크숍 진행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는 제22기 미주지역회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자문위원과 동반자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월미도 일대에서 역사 탐방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월미도와 자유공원을 방문해 맥아더 장군 동상과 인천의 근현대사를 살펴봤으며, 차이나타운을 둘러보며 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연경에서 황규호 회장의 초청으로 오찬과 워크숍이 열렸다. 황규호 회장과 송영욱 포틀랜드지회장, 이수잔 상임고문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미주지역회의 참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시애틀협의회 위원 51명이 참여한 설문에서는 이번 미주지역회의가 자문위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향후 과제로는 자문위원 교육과 참여 기회 확대, 차세대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및 미국 주류사회와의 연계·협력 등이 제시됐다.

월미도에서 진행된 후속 일정은 참가자들이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미주지역회의의 의미와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김민선 기자

## 2026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13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서

한인을 비롯해 다양한 민족이 미국과 한국, 세계 선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2026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회개, 부흥, 회복”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지난 2011년 11월 11일 시작된 남가주 연합 기도 행사로, 매년 다양한 민족과 교계 리더들이

참석해 미국의 회복과 부흥, 청교도 신앙 회복, 한국과 세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준비위원장은 강순영 목사, 사무총장은 강태광 목사가 맡고 있다.

이 기도대회는 은혜한인교회, JAMA, OC교협, 남가주교협, 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등이 주최하고 다민족



연합기도대회준비위원회가 주관한다.

김민선 기자

##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서는 것이 진정한 부흥”

복음연합감리교회 원흥연 목사,  
지역사회 섬김과 다음 세대 회복 위한 목회 비전 밝히

복음연합감리교회(원흥연 목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다시 품는 교회를 향한 목회 비전을 밝혔다.

김호웅 목사가 은퇴한 후 복음연합감리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을 맞은 원 목사는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은 교회의 특성을 고려해 시니어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한편,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함께 펼치고 있다.

원 목사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래서 심방하고 케어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사역으로 ‘리빙 투게더(Living Together)’를 소개했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역사회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리빙 투게더에서는 뜨개질, 영어 회화, 스마트폰 활용, 요가 등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스마트폰 강좌를 진행했으며, 한 학기는 약 두 달 동안 운영된다. 교단 내 펀드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참여하기 어려

운 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음악 클래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교회에 있는 음악 전공자들의 재능을 활용해 피아노와 드럼, 첼로 등을 배우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 목사는 “지역사회에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 가능하면 80% 정도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부담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교회 주변을 직접 청소하는 활동도 리빙 투게더의 일환이다. 성도들은 매주 화요일 교회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을 치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가 소셜 라이프의 중심이었던 시대와 달라졌다”

원 목사는 LA 코리아타운을 비롯한 한인교회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다음 세대의 이탈을 꼽았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주위를 보면 주말에 청소년들이 거의 스포츠나 여러 액티비티에 빠져 있다”

특히 코리아타운 지역은 학군 등의 영향으로 자녀를 둔 젊은 가정은 적은 데다, 젊은 세대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복음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원흥연 목사(앞줄 오른쪽) ©교회 측 제공

“예전에는 교회가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소셜 라이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러닝 크루나 각종 스포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분산돼 있다”

원 목사는 “이것은 저희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도의 방식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마트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전도도 있지만,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에서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변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교회에 상처를 입었거나 신앙생활을 떠난 분들을 다시 초청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사역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원 목사는 북부사 시절부터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교회와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은 교인들의 자녀”

원 목사가 다음 세대 사역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은 먼저 교인들의 자녀들이다. 부모 세대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인교회의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전도 대상이 교인들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어 “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마음 아프다. 그것이 1차적인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어권 예배, 즉 EM 사역을 세우고 싶다는 비전도 밝혔다.

“개인적으로 EM을 만들고 싶다. 건물



복음연합감리교회 원흥연 목사 ©교회 측 제공

을 찾기 어려운 영어권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자는 광고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영어권을 대상으로 흠뻑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원 목사는 영어권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예배와 공간을 마련하는 일을 계속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을 초청해 보자고 말하고 있다. 영어권이라면 필요하면 영어예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

원 목사가 그리는 복음연합감리교회의 목회 방향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

그는 “진정한 신앙인은 먼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흥을 숫자적인 부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서야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 성도들에게도 단순한 종교생활을 넘어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이민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 지금까지 뿌린 씨앗을 잘 거두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했다.

현재 복음연합감리교회는 시니어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중고등부 가정과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 ‘십의 9조’로 말라위 6천 청소년 품은 박희용·유성희 선교사, 시애틀 집회

시애틀 비전교회(담임 고창훈 목사)가 오는 9월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교육과 장학, 복음 사역을 펼치며 현지 청소년들의 자립과 미래를 세워가고 있는 박희용·유성희 선교사 부부가 강사로 제8차 성령축제를 개최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령축제 강사로 나서는 박희용·유성희 선교사 부부는 안정된 이민 생활과 전문직의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데 삶의 중심을 옮긴 평신도 선교사다.

지난 13년간 말라위에서 6천여 명의 청소년을 교육하고 리더로 양성한 이들 부



부는 자신들의 소득 대부분을 선교에 사용한 이른바 ‘십의 9조’의 헌신으로 알려져며 한국과 미주 교계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부부가 말라위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2013년 페이스 아카데미 파운데이션(Pace Academy Foundation:PAF)을

설립하면서부터다.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를 잃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고 복음 안에서 미래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는 비전에서 시작됐다. 이후 사역은 장학금 지원을 넘어 기독교 교육과 멘토링, 성경공부, 현지 목회자 및 교회 지원 등으로 확대됐다.

PAF에 따르면 현재 말라위 200개 이상의 중고등학교에서 2,650명 이상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장학생도 350명 이상에 이른다. 또한 2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정기적인 그룹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현지 목회자와 멘토들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신앙 상담과 멘토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부부의 선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재정 후원을 넘어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지향한다는 데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앙과 인격을 세우고, 지역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다.

목회자의 딸로 한국의 작은 농촌에서 성장한 유성희 선교사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배움의 기회를 잃는 친구들을 보며 인연이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이후 미국에서 교육자로 살아가던 그는 그 오랜 꿈을 말라위에서 구체화했다.

현재 유 선교사는 PAF 설립자이자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박희용 선교사는 미국 공인회계사(CPA)로 전문직의 길을 걸어왔다. 유성희 선교사 역시 미국에서 25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일궈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삶의 후반전을 자신들을 위한 축적보다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 선교사가 운영하던 학원이 문을 닫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졌을 때에도 오히려 말라위 장학생 지원을 확대하며 사역을 이어갔다.

PAF는 말라위의 가난한 가정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과 함께 지역

교회와 협력한 복음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현지 사역자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말라위 공동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장기적인 선교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박희용·유성희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는 선교가 특별한 사람만의 부르심이나 한 사람의 삶과 직업, 재정이 아니라 한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평신도 선교의 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공적인 이민자의 삶에서 말라위 청소년들의 ‘파파’와 ‘마마’로 삶의 방향을 바꾼 이들의 여정은 이번 성령축제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 탄소중립 선도 도시

#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 “세대 간 협력과 제자훈련, 무슬림 여성·선교병원 사역 등 위해 기도 요청”

##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 선교 기도 제목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에게 배  
우면서 통찰력 활용해 나가야

LA에 소재한 국제신학대학원(ITS) 학  
장인 알렌 예(Allen Yeh) 박사는 지난 7  
월에 로잔글로벌분석(Lausanne Global  
Analysis)에 기고하면서, 젊은 세대와 기  
성세대가 어떻게 서로에게 배우고 통찰  
력을 활용해 나갈지 설명했다. 그는 모  
든 세대가 하나님의 선교에 놀라운 통찰  
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목표 제  
시, 세대별 이야기 경청,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혜를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성세대 리더들은 일방향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반면 Z세대들은 결과 지향적  
이라고 말하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  
지고 객관성이 있는 지표와 명확한 목표  
를 제시하면서 서로에게 다가서야 한다  
고 했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는 각 세  
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증과 주장 위  
주의 기성세대와 진정성을 요구하는 Z세  
대 간의 이해와 포용을 넓혀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대 간에 신뢰를  
가지고 더 큰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야 하  
는데, 알렌 예 박사는 특별히 Z세대의 의  
견이나 검증 없이 그들에 대해 쓰인 글들  
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그는 성경과 선  
교를 기초 단계에 놓고, 우정과 상호성을  
중간 단계에, 그리고 협력을 정점에 두면  
서 세대 간 선교 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  
요성을 언급했다. 모든 세대가 성경과 복  
음, 하나님의 선교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  
서 서로를 이해하고, 기성세대의 경험과  
Z세대의 창의성과 열정이 결합하여 새로  
운 선교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자.  
(출처 LGA 15, no. 2)

◇선교지 제자훈련, 모든 신자를 대  
상으로 삶의 전 영역 다뤄져야

OMF 선교회 소속으로 1989년부터 필  
리핀에서 사역한 스미스(Andy Smith) 선  
교사는, 선교지에서 제자훈련은 초신자  
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신  
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7  
월 선교저널 EMQ에 기고하면서, 제자훈  
련은 새롭고 젊은 그리스도인들만 필  
요한 훈련이 아니라 선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말하는 스  
미스 선교사는 진정한 영적 성숙이란 성  
취감보다 성숙으로 나아가겠다는 열정적

목적을 만들어 낸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제자 훈련이 영적인 면만 다룰 것이 아니  
라 더 넓은 범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  
체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원의  
확신, 성경, 교제, 헌금, 기도, 전도, 예배  
등 교회 내에서 활동과 함께 개인적 욕망,  
도덕적 선택, 사회적 역할, 내면적 갈등,  
재정 관리, 창조 세계 돌봄, 취미 생활, 직  
업윤리, 성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선교사들과 교  
회 지도자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함  
구하거나 적절한 가르침을 회피하는 경  
우가 있는데,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  
는 것은 주일 아침 몇 시간 동안만 이뤄  
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  
다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  
천해 나가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된 교인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기도하자.  
(출처 EMQ 62, no. 3)

◇무슬림 여성 사역, 여성의 역할과 신  
분 신중하게 고려해야

지난 7월 케터링(Eliza Kettering) 선교  
사는 선교저널 EMQ에 기고하면서, 무슬  
림 선교사들은 교회개혁 방식과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신분을 신  
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아시아에서 10년 이상 사역해 온 케  
터링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  
을 한 무슬림 여성들이라 해도 가정 내  
에서 역할이나 지역사회에서 신분은 제한  
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  
과하고 공격적인 방식을 요구하거나 핍  
박을 감내하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도리  
어 이들의 신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  
했다. 어느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성들이 가족들에게 개종  
사실을 밝히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억압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아버지가 기  
독교로 개종한 딸을 강제로 무슬림 남성  
에게 결혼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대  
로 가족들에게 개종한 사실을 밝히지 못  
해 불편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지  
만 몰래 교회를 찾고 휴대폰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 나가는 경  
우도 보게 된다. 케터링 선교사는 여성들  
이 자신의 신앙을 밝히거나 나누기를 주  
저할 때, 선교사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  
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여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여성. 개종한 무슬림 여성이라 해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한적  
인 경우가 많아 선교사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성들을 특정 방법에 맞추도록 강요해서  
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테넨  
트(Timothy Tennent) 박사의 말을 빌려,  
신앙을 갖춘 채로 믿음을 실천하고 기독교  
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분석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종한 무슬림 여성들  
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 나가고, 이  
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조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혜를 갖추도록  
기도하자. (출처 EMQ 62, no. 3)

◇다양성 반영하면서 세계 기독교 역  
사 재조명해 나가야

선교 역사가인 패스트(Anicka Ruth  
Fast) 박사는 지난 7월 선교저널 IBMR  
에 기고하면서, 다수 세계 교회가 부흥하  
고 성장함에 따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 대  
한 재조명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  
녀는 부르키나파소 신학교에서 아프리카  
신학생들이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기반  
을 서구나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것에 반  
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계 교회는 다수세계 지도자들과 선교  
인물들의 전기를 기술함으로써 지금껏  
소외되어 왔던 다수세계 교회에 대해 재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하  
는 다수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껏 지켜  
온 그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다른 기독교 전통의 구성원들과 다양  
성의 맥락에서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 오랫동안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잘 드러나지 못  
했던 여성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  
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기독교 여성들은 현재도 세계 교회 구  
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누락되거나 심각하  
게 훼손된 경우가 많다. 선교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잊혀 왔던 다수세  
계 교회와 기독교 여성들의 이야기를 잘 정  
리해 나가고, 앞으로 세계 교회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협력하고 성장하도  
록 기도하자. (출처 IBMR 50, no. 3)

◇변화하는 선교환경에 맞게 선교병원의  
역할 재정립해야

20세기에 의료선교는 아프리카를 비  
롯해 여러 대륙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선교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고  
가의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부담이나 직  
원 급여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문제 등  
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수의 선  
교병원이 문을 닫았다. 7월 22일, 케냐  
의 한 선교병원에서 사역하는 로프터스  
(Matthew Loftus) 선교사가 이러한 문제  
를 지적하면서 21세기 변화하는 선교환  
경에 맞게 선교병원의 역할이 재정립되  
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기독교잡지 크리스  
챌러니 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 기  
고했다. 그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현지 의료 선교사를 훈련시켜 복  
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 파견하는 역  
할이다. 아직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의심받거나 살해 위협을 경험한다. 이 상  
황에서 선교병원을 통해 현지인 전문 의  
료진이 선교사로 훈련된다면 미전도종족  
복음전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둘째로 선교병원이 지역 의료 환경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아직도 아프  
리카에서 사립병원들은 부실한 의료 시  
스템을 가지고 있고, 환자를 속여 불필요  
한 진료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교병  
원이 최상의 진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  
원함으로써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  
프리카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선교병원  
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시



부룬디 키부예의 희망병원. 20세기 의료선교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으나, 21세기 변화하  
는 선교환경에 맞게 선교병원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에도 의료와 복음을 연결하는 선교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미국 Z세대, 모든 세대 중에서 유일  
하게 예배 참석률 감소

미국심사공회(ABS)가 8월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한 미국인의 비율이 2024년(45%)보  
다 4% 증가해 2025년에 49%로 나타났  
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X세대와 밀레니  
얼 세대가 주도했는데, X세대는 49%에서  
54%로 늘었고, 밀레니얼 세대는 39%에  
서 42%로 증가했다. 하지만 Z세대의 경  
우는 모든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예배 참  
석률이 줄어 46%에서 42%로 떨어졌다.  
또 다른 질문으로, “교회가 교인들의 영  
적 성장을 돕고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었  
다. 각 문항(10점 기준)에 있어서, 담임목  
사가 영적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항  
목은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회에  
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다  
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  
하고 있다는 항목은 8.0, 교회가 영적으  
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7.8로 나  
타났다. 하지만 Z세대의 경우는 교회가  
영적 성장에 기회를 주느냐와 관련해서  
도 남성은 6.9, 여성은 7.7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미국  
심사공회의 선임연구원 플레이크(John  
Farquhar Plake) 박사는 세례를 받은 많  
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 명단에 올라있지  
만, 이들이 왜 교회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  
는지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  
다. 그리고 그는 35% 정도가 명목상 기  
독교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Z세대들이 다  
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고,  
미국 교회가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출  
처 soth.americanbible.org)

◇캐나다, 군대 내 공개 행사에서 종교  
적 표현 금지 지침 내려져

7월 29일, 캐나다 정부는 국가의 종교  
적 중립성 원칙 준수 차원에서 캐나다군  
(CAF) 소속 구성원의 경우 공개적인 행  
사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의식이나 행  
동, 상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군종 목사들에게까지 공  
식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요청받았을 시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영적인 성  
찰을 나누도록 권고했다. 캐나다 국방부  
는 2015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토대  
로 새로운 지침의 기본 원칙이 포용성이  
라고 밝혔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  
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계없이 모  
든 캐나다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하원 의원인 베잔  
(James Bezan)은 공식 행사에서 기도와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적 표  
현에 대한 캐나다의 오랜 전통에서 벗어  
난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캐나  
다복음주의연합(EFO)의 명예회장인 클레  
멘저(Bruce Clemenger) 목사는 군종 목  
사들의 활동을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  
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기  
독교선교연맹(C&MA) 산하 군목협회 회  
장인 헨더슨(Sharlene Henderson)은 다  
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  
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중립성을 달성하  
는 최선의 방법인지는 의문이라고 우려  
했다. 캐나다에서 종교적 중립성 원칙이  
특정 종교의 배제나 신앙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기독교인  
들이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  
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 브릿지온이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브릿지온(Bridge On)은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과 전시를 전해드립니다.

문의 |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메일 | art@miral.org

전화 | 02-6411-3649  
홈페이지 | 밀알문화예술센터.kr



자세히보기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애주기별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합니다.

# 아프리카 20개국, 낙태·결혼·가족정책 자주권 강조 헌장 채택

아프리카 20개국이 낙태와 결혼, 가족 정책 등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헌장을 채택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프리카 가족주권가치 헌장(The African Charter on Family, Sovereignty and Values)'은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헌장은 가족제도와 국가 자원, 농업, 무역, 국제협정 참여 등에 관한 일련의 원칙을 담고 있다.

헌장 지지자들은 국제적 원조와 외교

적 압력, 국제협정 등을 통해 외부 세력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체적으로 법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장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제7조에서는 국제적으로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낙태를 '성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관련 권리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제4조는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각국 정부가 재검토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를 허용하는 법률에 반대하고, 성별 정체성을 장려하는 정책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생명존중운동 단체인 태아보호협회(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nborn Children-SPUC)의 존 디건(John Deighan) 최고경영자는 헌장 채택을 환영하며 서구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자유주의적 사회 가치관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구 국가들이 피임과 낙태, 성적 표현에 관한 정책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강요해 왔다고 주장하며 "20개 국가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디건 최고경영자는 또 서구 국가들이 헌장이 강조하는 생명과 가족, 국가 주권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이 낙태의 자유화나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와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장은 사회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와 농업 분야의 국가 자주권도 강조하고 있다.

각국이 토착 종자를 보호하고 농민 중심의 농업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했다.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제협정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협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잡한 문서를 전달

받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헌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남아공 헌법상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니 출신 가톨릭 추기경 로베르 사라(Robert Sarah)는 유럽연합(EU)이 서구의 사회적 가치관을 아프리카에 확산시키려는 과정에서 신식민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미경 기자

## 전 세계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한 웨스트민스터 대주교

영국 가톨릭교회 웨스트민스터 대교구장인 리처드 모스 대주교가 국제사회에 전 세계적인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웨일스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도 맡고 있는 모스 대주교는 최근 유엔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청원에 신자들과 지지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모스 대주교는 국제 가톨릭 자선단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ACN)'의 종교 자유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며, 전 세계 약 54억 명이 정부나 무장세력에 의해 종교적 박해나 차별을 겪는 국

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적대적인 정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많은 경우 정부 당국이 박해를 막을 능력이 없거나 이를 막으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경우 중앙정부가 기독교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정부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나이지리아가 기독교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히는 것은 이슬람 무장세력과 무장 강도단의 공격을 당국이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 여성들이 납치된 뒤 강제 결혼과 개종을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린치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 대주교는 "남녀를 불문하고 평화롭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집에서 쫓겨나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돼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납치범과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배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와 노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증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 대주교는 신자들에게 박해받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로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교황 레오 14세 역시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황은 종교의 자유가 "단순히 법적 권리나 정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배우 안나 패리스 “아들이 예수 믿으라고 권유”

할리우드 배우 안나 패리스(Anna Faris)가 14세 아들 잭의 권유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패리스는 최근 첼시 핸들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Dear Chelsea'에 출연해 아들 잭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잭은 패리스와 배우 크리스 프랫(Chris Pratt)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2018년 이혼했다.

패리스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여기에도 해당하지만, 아주 많은 긴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종교적이라고 설명했다.

패리스는 "나는 종교와 함께 자라지 않았다"며 "아들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신앙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계의 '위선(hypocrisy)' 등을 언급하며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고민이 있음을 내비쳤다.

잭의 아버지인 크리스 프랫은 아들의 출생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잭은 9주 일찍 마속아로 태어났으며, 당시 프랫과 패리스는 아들의 건강을 두고 큰 두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랫은 과거 아들의 출생 당시를 회상하며



안나 패리스. ©Instagram/AnnaFaris

"우리는 오랫동안 두려워했고, 많이 기도했다"고 말했다.

프랫은 이후 "그 일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켰다기보다 믿음을 새롭게 정의했다"며 아들의 생존이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든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아들을 살리셨고, 그것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한 순간이었다"며 "앞으로 내 영향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프랫은 할리우드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잃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한편 패리스는 아들 잭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질문과 도전을 받더라도 이를 감당할 만큼 정서적으로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잭에게 낙태 반대 입장과 관련해 질문하거나 일부 대영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패리스는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도전을 받으면서도 생각해 나가고 있다"며 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미경 기자

## 美 캘리포니아 종교교육 금지 논란… 학부모들, 연방대법원에 심리 요청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터스쿨의 홈스쿨링 프로그램에서 종교적 교육자료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김슨 던 앤 크러처 LLP, 킹 앤 스폴딩 LLP와 함께 최근 존 브리아나 울러드 부부, 헤다다야에나 곤잘레스 부부, 캐리 도슨 등 3가정을 대리해 '존 울러드 외 대 토니 서먼드 외' 사건의 상고허가 신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캘리포니아주가 차터스쿨의 독립학습 프로그램에서 종교적 성격을 가진 교육자료를 사용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지원과 학업 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차터스쿨이 월리엄 펜과 조너선 에드워즈의 저작물을 '종교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밥 존스대학교의 'Focus on Fives'와 종교적 가르침을 학업 과목에 접목한 'The Good and the Beautiful' 등의 교재를 사용하려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례로 학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도록 비를 보내신다"는 문장을 활용한 문법 연습문제조차 학교 측

이 "종교적 표현이 포함된 어떤 학습 결과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하람 새 서수석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앞선 재판들이 "주 정부의 종교적 차별을 잘못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새서 고문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집에서 가르치면서 주정부가 요구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양질의 종교적 교육과정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9조 8항은 공공 자금이 종교적 또는 교파적 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공립학교에서 종파적 교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를 위한 교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법은 차터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이 "비종파적(nonsectarian)"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터스쿨이 공교육 체계의 일부인 만큼 종파적 성격의 종교교육에 공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주 정부와 학교 측의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9월 28일부터 새 회기에서 어떤 사건을 심리할지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재개하며, 새 회기는 10월 5일 시작된다. 울러드 대 서먼드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할지 여부는 윤가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경 기자



# 극동방송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 센터 착공… 라디오 등 방송 거점 마련

인구 80% 가시청권 확보 이어 15개월간 종합 스튜디오 건립 청취자 대면 소통 공간 조성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국제 기독교 방송 기관인 극동방송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라디오와 팟캐스트,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갖춘 새로운 선교 센터 건축을 시작했다고 9월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극동방송은 지난 1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장에서 현지 직원과 선교 협력자,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 센터 기공식과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축 센터는 극동방송의 캄보디아 현지 사역인 '사랑의 소리' 방송군 운영을 전담하게 되며 완공까지는 12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선교 센터 착공은 극동방송이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독교 방송망 확장 프로젝트에 이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 ◆캄보디아 인구 80% 전파망 기반 디지털 선교 역량 강화

극동방송은 앞서 2025년 중반 새로운 송신탑과 송신기를 가동하며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80퍼센트가 라디오로 복음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파망을 구축했다. 새롭게 들어서는 선교 센터는 이러한 청취망을 토대로 스트리밍과 디지털 오디오, 영상 미디어 제작 역량을 다각도로 확대하기 위해 건립된다. 신축 센터 내부에는 전통적인 라디오 방송 제작 시설과 함께 최신 오디오 및 비디오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가 들어설 예정이다.

에드 캐넌 미국 극동방송 최고경영자는 라디오 방송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오늘날에는 스트리밍과 소셜 미디어, 팟캐스트

등 과거 설립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독교 방송 선교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건축 배경을 전했다.

특히 이번 센터 건립은 단방향 전파 송출에 머물지 않고 방송 청취자들을 캄보디아 현지 교회와 직접 연결하는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건물 1층은 청취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대면 공간으로 조성되며 각종 회의실을 배치해 극동방송이 직접 콘퍼런스 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공간은 현지 선교 협력 기관들에게도 사역 장소로 제공된다.

## ◆비대면 방송 넘어 청취자 대면 소통 및 현지 사역 연계

극동방송은 방송 청취자들을 현지 기독교 신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들이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보이스 오브 러브 캄보디아(Voice of Love Cambodia)'를 위한 새로운 극동방송(FEBC) 사역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새 센터에는 라디오와 팟캐스트,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가 들어설 예정이다. ©FEBC

제공하는 것을 캄보디아 사역의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삼팔 마카라 캄보디아 극동방송 사역 디렉터는 새로운 미디어 인프라와 공간을 활용해 캄보디아 전역의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 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전 세계 후원자들의 기금으로 진행됐으며, 미국 노스웨스턴 미디어가 재정 지원과 함께 방송 공학 및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노스웨스턴 미디어 측은 공학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캄보디아 사역 팀이 향후 여러 세대에 걸쳐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건축 비용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은 1946년 설립 이래 지상파 라디오와 디지털 오디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기독교 방송 콘텐츠를 전파하고 있다. 극동방송은 캄보디아 외에도 현재 사역 중인 다른 여러 국가에서 이번 센터와 유사한 규모의 미디어 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논의 및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드 캐넌 사장은 향후 미디어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를 예상하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현지 사역 팀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최 기자

## 나이지리아 플레토주서 한 달 새 기독교인 30여 명 피살

플라니족 무장 세력 소행 추정… 민간인 대상 무차별 총격 및 방화 발생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부 플레토주에서 최근 한 달 동안 3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플라니족 무장 세력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9월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일부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주 정부는 치안 강화를 약속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플레토주 망구 카운티 일대에서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다수의 기독교인 집성촌이 무장 세력의 습격을 받았다. 지난 9월 5일 푼티 지역과 카나트 지역에서 세 명의 기독교인이 피살됐으며, 앞선 3일에는 콤난레 마을과 카나트 마을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이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가장 규모가 큰 피해는 지난 8월 18일 발생했다. 새벽 3시경 기독교인 마을인 빈페르에 플라니족 목동 무리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들어닥쳐 25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했다. 망구 지방정부 위원회의 제레미아 다카할 대변인은 빈페르 마을에서 25명이 희생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 ◆무장 세력의 무차별 학살 및 군 발표 논란 확산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빈페르

마을 습격 당시 희생자의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였으며, 무장 세력은 주택을 불태우고 농작물을 훼손했다. 사망한 25명은 당일 하나의 무덤에 합동 매장됐으며, 부상자들은 인근 조스 시내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8월 12일에도 무리시 마을에서 한 청년이 살해됐고, 조악 마이툼비 지역에서는 38세의 가족이 전소됐다.

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된 군인들이 민간인을 향해 발포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사회 지도자인 조나단 유수프는 지난 8월 18일 사본 레이 지역에서 연쇄 살인에 항의하던 기독교인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 9일 자카타이 지역에서는 마을을 경비하던 기독교인 팔사크 다육이 군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수프는 군 당국이 사망한 다육을 민병대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는 지역사회를 방어하던 민간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가해자에 대한 체포와 기소를 정부에 요구했다.

## ◆주 정부 강경 대응 방침 및 기독교 박해 심화 우려

사태가 확산하자 알프레드 알라보 주 경찰 대변인은 망구 지역에서 공격에 가담한 용의자 일부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칼렘 무트프와 플레토주 주지사는 피해를 입은 마을들을 방문해 이번 공격을 아반적 행위로 규정하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기독교 박해 및 종교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국제 선교단체 오픈도어즈의 '2026년 세계 감시 목록'에 따르면, 조사 기간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4849명 중 72퍼센트에 해당하는 349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3100명에서 상당수 증가한 수치로,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으로 살기 어려운 국가 7위에 올랐다.

현지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사막화하 유목 생활이 어려워진 이슬람 무장 세력이 기독교인들의 비옥한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일부 플라니족 세력이 보코하람 등 테러 단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표적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신흥 테러 조직 '라쿠라와'까지 등장해 종교 탄압과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 파키스탄 무슬림 남성, 구애 거절한 21세 기독교인 여성 사살

자택 무단 침입해 총격 범행…

목격자인 10대 동생 납치해 거짓 자백 강요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라왈핀디 지역에서 21세 기독교인 여성이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무슬림 이웃 남성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9월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 내 소수 종교인에 대한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사바 메흐부브의 오펜 조슈아 메흐부브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오후 9시경 도케 라타 지역에 위치한 사바의 자택에 아드난 버트로 알려진 가해자가 권총을 들고 침입했다. 버트는 약 1년 전 남편과 별거 중이던 사바를 협박한 끝에 총을 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용의자는 범행을 목격한 16세 의붓동생 아누쉬를 납치해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짓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슈아 메흐부브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아누쉬와 삼촌 마이클, 노미가 방에 있던 중 버트가 사바와 함께 들어와 폭언을 가했다. 버트는 삼촌들에게 권총을 겨누며 방에서 나갈 것을 지시한 뒤 사바가 자신을 배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폭행을 가했다. 폭행 직후 버트는 사바를 정조준해

살해했다. 이후 버트는 총기로 아누쉬를 위협해 밖으로 끌고 갔으며 대기 중이던 공범과 함께 아누쉬를 버트의 처남 집으로 납치했다. 버트 일당은 아누쉬에게 경찰에 사실을 알릴 경우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바를 죽인 범인이 아누쉬 본인이라고 자백할 것을 강요했다.

아누쉬는 다음 날 오후 5시경까지 감금당했으며 버트는 아누쉬의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도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아누쉬는 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야 풀려났다. 석방 직후 아누쉬는 가족과 함께 누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경찰에 사건의 전말을 진술했다.

경찰은 아누쉬의 증언을 확보해 그를 고소인으로 세우고 아버지와 함께 신변 보호를 위한 구금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고소장 접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버트는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슈아는 버트가 오랫동안 사바를 괴롭히고 협박해 왔다고 진술했다. 버트가 시장에서 사바의 길을 막고 희롱하자 사바가 뺨을 때리며 거절한 적이 두 번 있었으며 이러한 단호한 거절이 범행

의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사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도케 라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주민들이 모여 버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지 언론인 타리크 차만에 따르면 유족과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 사건 은폐를 위해 아누쉬에게 누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를 부인하며 미성년자인 아누쉬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금 중이라고 해명했다.

가족과 지역 원로들은 아누쉬 부자의 조속한 석방과 함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고위 경찰 간부에게 이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버트와 그의 가족이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측의 협박과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 내 종교적 소수자들이 성폭력 강제 개종 신성 모독 혐의 조작 등 다양한 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피해자나 가족이 정식 사법 절차가 아닌 외부의 강압적인 합의를 종용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 박해 감시 기구인 오픈도어즈는 2026년 세계 감시 목록에서 파키스탄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국가 8위로 선정했다. 다니엘 최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I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 미·이란 보복전 격화… 이란, 요르단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

미국, 이란 유조선 5척 공격…

혁명수비대 추가 보복 경고에 호르무즈 긴장 고조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하며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란 유조선 5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준관영 타스니통신을 통해 요르단 알 아즈라크 기지에 주둔한 미군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고체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다수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F-35와 F-16, F-15 전투기의 정비 준비배치 시설과 격납고 등을 타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요르단 “20발 중 18발 요격…인명 피해 없어”

요르단군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0발 가운데 18발을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요격되지 않은 2발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떨어졌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장한 미군 시설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

았다.

앞서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근 이틀 동안 미 해군 함정을 두 차례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군 함정은 두 차례 공격을 모두 피했으며 미군 측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유조선 M/T 카비즈, M/T 차르미나르, M/T 호라이즌 1, M/T 리에스코 등 4척을 공격하고 카르그섬 인근에서 M/T 데리아를 추가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콜롬비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미 해군 함정 공격 시도가 계속될 경우 대응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유조선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추가 보복 경고…호르무즈 긴장도 고조

이란 측에서도 미국의 유조선 공격에 대한 추가 대응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란 국영 TV는 아스크 해안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 1척이 공격받은 데 이어 인근 해역에서 두 번째 유조선도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두 선박의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이용해 아스크 해안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이란 유조선도 하르그섬 정박지에서 공격받았으며 승무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이란 국영 TV는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미국의 추가 공격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경고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 항구 인근에 정박한 유조선 선원들에게 즉시 선박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해당 선박들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이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내놴다.

◆브렌트유 99달러대…에너지 시장 불안 확산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반복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이란 전문가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AP통신에 보복 공격이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

면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미국과 이란 모두 통제하기 어려운 긴장 고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발발 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던 핵심 해상 수송로다. 양국의 군사 충돌로 통항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제 원유 공급과 에너지 시장에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는 8일 한때 배럴당 99.46달러까지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장기화 여부가 국제유가와 호르무즈 해협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홍은혜 기자

## 용혜인 후보자 남편 급여·공항 귀빈실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영등포경찰서 관련 고발 사건 배당…

10일 ‘특별당비·배우자 급여’ 의혹 고발인 조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급여 관련 의혹과 과거 가족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

돼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3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용 후보자에 대한 정

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고발인인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 경위와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당비·배우자 급여’ 관련 의혹 고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지급 과정에 불법 정치자금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했고, 그 일부가 배우자 급여로 지급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현재 고발인의 주장으로,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도 영등포서 배당

용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이용과 관련한 별도의 고발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제주도 가족 여행을 앞두고 가족들과 김포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스

향 귀빈실을 이용했으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법·직권남용 등 다른 고발도 이어져

용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고발 사건도 제기된 상태다.

용 후보자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의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적힌 옷을 입은 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보좌진에게 자녀를 돌보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용 후보자가 이사장을 지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발도 제기됐다.

경찰은 각각의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증인 채택은 보류

국민의힘 44명 증인 요구에 여야 이견…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증인 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안건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신약 로보’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증인 없이 맹탕 청문회”… 민주당 “특정 사건 관련 인사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앞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위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간사가 의원들과 협의한 이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밤새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오늘 아침에서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온 국민의 시선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법사위와 인사청문회의 책무인데 증인 하나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의 상당수가 이른바 제넨셀 사건과 관련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라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 무한 반복하려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참고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협의를 더 진행한 뒤 추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특별감찰관은 약 10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WeConnectScience

충전 한번으로 메디슨 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9% 역대 최고… ‘야차룰’ 등 신종 학폭 확산

초등학생 피해응답률 5.7%…

집단 따돌림·신체폭력 증가, 가해응답률은 하락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6년 연속 상승하며 2.9%를 기록했다.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5.7%에 달했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비중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이른바 ‘야차룰’과 ‘스파링’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도 나타나 교육당국이 대응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3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체의 81.9%인 319만명이 참여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9%…6년 연속 상승

올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지난해 2.5%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지난해 2.5%, 올해 2.9%로 6년 연속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지난해 5.0%에서 올해 5.7%로 상승했다. 중학교는 2.1%에서 2.3%, 고등학교는 0.7%에서 0.8%로 각각 올랐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약 9만16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약 5만6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만6200명, 고등학생 860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1.2%포인트, 사이버폭력은 0.8%포인트 감소한 반면 집단 따돌림은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증가했다.

◆피해응답 늘었지만 가해응답은 0.8%로 감소

피해응답률이 상승한 것과 달리 가해응답률은 낮아졌다. 올해 가해응답률은 0.8%로 지난해 1.1%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초등학교 가해응답률은 2.4%에서 1.6%로, 중학교는 0.9%에서 0.7%로 낮아졌다. 고등학교는 0.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6.1%에서 올해 6.7%로 상승했다. 초등학교는 11.0%,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2.6%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높아졌다.

교육지원청에 실제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감소했다. 2025학년도 접수 건수는 5만688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다만 접수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중은 51.7%로 높아졌고,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22.1%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피해응답률 상승과 가해응답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난 배경 가운데 하나로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학생 간 인식 차이를 들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점차 과격해진 뒤 피해학생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받아들이지만, 가해학생은 여전히 장난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인식 차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야차룰’ 영상 촬영유포까지…교육

부경칠 대응 강화

최근에는 ‘야차룰’과 ‘스파링’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나타나고 있다.

‘야차룰’은 별도의 보호장구나 뚜렷한 규칙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뿐 아니라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고 이를 촬영·유포하는 형태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을 모아 서로 싸움을 붙이고 영상을 올리는 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야차룰’을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보고 발생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강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싸움을 강요하거나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하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예방교육을 단순한 인식 개선에서 벗어나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제 대응 역량 증진으로 보완하고, ‘관계회복 숙려제’ 적용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내래 기자

## 8월 취업자 18만4000명 증가… 청년 고용 부진은 지속

청년층 취업자 46개월째 감소, 제조·건설업도 부진

8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며 최근 5개월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 고용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은 이어졌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만4000명, 0.6%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8000명, 2월 23만4000명, 3월 20만6000명을 기록한 뒤 4월 7만4000명, 5월에는 4만명 감소로 위축됐다. 이후 6월 6만3000명,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보건·사회복지업 증가…제조·건설업은 감소 지속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18만6000명 증가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은 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4만5000명 늘었다.

반면 농업·어업은 10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6만1000명, 제조업은 3만8000명, 건설업은 3만2000명 각각 감소

했다.

제조업은 26개월, 건설업은 28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숙박 및 음식점업 감소와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에 따른 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며 음식업과 주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상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8만명 늘었지만 임시근로자는 5만명, 일용근로자는 1만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4만7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6만2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7000명 줄었다.

◆청년 취업자 14만3000명 감소…46개월 연속 마이너스

청년층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15~29세 취업자 수는 34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만3000명 줄었다.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46개월 연속 이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취업자가 16만4000명 감소했고 40대도 1만7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19만1000명, 30대는 9만1000명, 50대는 6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전체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포인트 상승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28개월째 이어졌다.

8월 실업자는 5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 감소했다. 전체 실업률은 2.0%로 전년과 같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쉬었음’ 감소…정부 “고용 회복 경로 복원 여부 지켜봐야”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7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55만1000명으로 8만9000명 감소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5만8000명 줄었고, 30대는 2만5000명, 40대는 1만명, 50대는 5만7000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에

서는 5만4000명 증가했다.

빈 국장은 청년 고용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더라도 ‘쉬었음’ 상태에 있던 일부 청년이 구직활동에 나서며 실업 상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의 ‘쉬었음’ 감소를 두고 훈련과 구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고용 회복 경로가 일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년 고용률 자체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만큼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등 취약 부문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 점검과 산업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생산적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내래 기자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쟁점 2440억원으로 축소

최 회장 측, 7000억원까지 수금 입장…

SK 주식 분할 대상·가액 산정 범위 다시 다룰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다룰 금액을 2440억원으로 줄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전체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까지는 수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2440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을라며,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재산분할 비율,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고노 배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도 재산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으며,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대신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분쟁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했다. 조정이 결렬된 뒤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2심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지만 최 회장이 재상고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 문제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내래 기자

### 대표님!

##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다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 SAMSUNG SDS



# 사무엘서 39. 다윗 가정의 비극(3) 피난 가는 다윗

본문: 삼하15:13-16:23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집안의 불화가 쿠데타로 이어진 최악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화 장면 같은 현실 상황이 비상 상황,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다윗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찢까 하노라”(14절).

부자지간의 싸움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싸움이 되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관을 빼앗겠다고 일으킨 반란, 이진 쿠데타다. 생명까지 노린다.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도 많다(12절). 눈치 빠른 모사들과 장군들도 가담한 최악의 상황, 피신해서 지은 시를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시31). 민심도 완전히 돌아서고(13절), 반란의 물결이 너무 거세다. 어제의 충성을 휴지처럼 버리고 반역의 깃발을 마구 흔들어댄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부자지간이 아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압살롭이 공개적으로 취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인물보다는 권력 찬탈의 야욕만 충만하다. 황급히 도망치며 다윗은 열 명의 후궁을 남겨두는데, 압살롭은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다(16절). 다윗이 후궁들을 남겨둔 것도, 압살롭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도 다 예루살렘은 자기 도시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 위한 짓이기도 했다.

◆광야로 도망친 피난  
정제 판단이 빠른 다윗, 우물쭈물 시간이 없다. 도망친다. 예루살렘은 방어하기는 좋지만, 고립되기 도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 모습이 처량하다. 울

며 광야로 떠난다(23절). 머리를 가리고 우는데, 맨발(30절)이다. 그만큼 급했다는 말이다. 통곡하며 떠난 도주, 아들로 인해 권력을 잃은 신세가 처량해서 울었겠지만, 그보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기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이 비극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윗답다. 가정이 파탄 나고 민심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만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이 피난은 처량하기만 한 피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피난이 된다.

광야에서의 고백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시33). 아들이 버리고 세상이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고백이다. 사람들이 치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 하며, 절망과 수치와 공포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피난 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시36).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시37).

광야에서 기도를 회복한 다윗,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이런 다윗을 보며 “다윗의 인격이 형성되었던 광야에서 다윗의 다윗다움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했다.

◆피난 중에도 결을 지켜준 사람들  
권력을 잃고 처량하게 맨발로 울며 도망치는 데도 다윗의 결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너무 귀하다.

잇대를 아나? 들여보지 못한 이름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방인, 재미있는 것은 잇대와 함께 블레셋 가드 사람 600

명이 다윗을 호위하며 피난길에 올랐다는 것이다. 잇대는 아마 용병이었던 것 같은데, 용병이라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익이 아니라 의리를 택했다(21절). 그가 언제부터 다윗 곁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고난의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다윗에게는 이런 친구가 많다. 오랜 세월 고난 중에 만났던 친구들, 그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같은 친구였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 중에 사독 일행이 있다. 레위인과 함께 법궤를 들고 따라나섰던 사독,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을 잇는 정통 대제사장 가문을 형성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따라나서려 한 것은 잘못된 것. 다윗은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할 도구로 법궤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 다윗에게는 법궤보다 하나님이 중요했다(25절). 잘한 거다. 이래야 한다. 법궤 같은 겉데기 붙들고 만족하면 안 된다. 교회도 사실은 겉데기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 아들들에게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한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참 골골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독 일행도 다윗과 마음을 합한 것 같다.

함께한 사람 중에 의심 가는 사람도 있었다. 시바다. 다윗 일행을 도우려고 두 나귀와 먹을 것을 잔뜩 갖고 온 사람, 하지만 다윗에게 므비보셋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기도 하다. 므비보셋이 차체에 왕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 거다. 그래서 다윗은 므비보셋의 소유가 다 네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때 마중 나온 므비보셋은 그때 자기도 나가려 했는데, 시바가 막았고 자신을 모함했다고 한다. 그 증거로 다윗이 떠난 이후로 슬픔의 표시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고 한다. 애기가 다르다. 난감해진 다윗은 재산을 다시 둘로 나누어 시바와 므비보셋에게 각각 나누어 준다. 므비보셋도 믿어야 할 것 같고, 외롭고 힘들 때 먹을 것과 나귀를 가지고 왔던 시바도 고마웠기 때문이다. 누가 옳았는지는 성경도 판단하지 않았다.

둘 중 하나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사람, 줄타기한 사람인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둘 다 인정해주는 것으로 정리한다. 이 또한 잘한 일로 보인다.

◆비난하고 배신한 사람  
아들의 쿠데타 때문일까? 아니면 성폭행과 청부살인한 다윗이기 때문일까? 시편에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시32). 그들은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했다. 아마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소리였을 것이다. 비난 아라기보다 저주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 가운데 단연 으뜸은 시므이였다. 시므이는 다윗의 피난길을 쫓아가며 돌을 던지고 저주한다(16:7-8). “썩 꺼져라! 쓸모없는 늙은이, 더러운 살인마!” 그렇게 소리쳤다는 거다. 힘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던 사람이 소리치며 따라온 것, 시므이만 그랬을까? 추측건대 여기 저기서 그런 소리 했을 거다. 세상인심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하며 시므이의 목을 베려고 하자 다윗이 막는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16:10-11). 다윗은 그의 저주를 하나님께 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욕먹을 만하다고 여긴 것, 이는 광야에서 겸손을 회복했기 때문일 것 같다.

“사람이 욕은 막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 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욕 한번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도 욕먹으셨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듣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셨다. 그렇다면 욕 좀 먹거나 고난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위축되지도 말아야 한다.

다윗은 자신의 죄는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16:12). 실제로 이 믿음대로 주님은 다윗에게 선을 베푸신다. 나중에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

시므이가 용서를 빌며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다(19:19). 살려달라는 것. 하나님이 다윗이 당한 수모를 갚아 주신 것이다.

다윗에게 비수를 쫓은 사람이 또 있다. 아히도벨이다. 아마 압살롭 다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일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그는 현명하다고 평판이 난 사람, 다윗의 신임을 받은 조언자요, 믿음직스럽고 사려 깊은 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 그가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몰아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16:23)이라 할 정도였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배신했다. 심지어 압살롭에게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권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그다. 다윗은 자는 별이고 압살롭은 떠오르는 별, 대세가 기울었다는 생각에 배를 갈아탄 것이다. 눈치 빠른 기회주의자, 온화하고 현명하다는 명성 이전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소인배에 불과한 사람, 대중적 이미지는 멋진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쪼टे 없는 인간, 도덕적 빼데도, 영적 근육도 없는 인간일 뿐이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분노했는지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내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아라니!”(시55:12-14, 새번역). 아아서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양긴 췌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름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 뜬 비수로구나!”(시55:20-21).

그런데 다윗은 복수보다 기도를 택한다.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여러식게 하옵소서”(15:31). 방파제가 무너진 것 같은 시대를 맞고 도 다윗은 과연 다윗답게 회복되고 있다.

## 주여 네팔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찬길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다  
운타운캠퍼스



팔월의 끝자락을 지나며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을 바라보면, 성경이 말하는 “시절을 아끼라”는 권면이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바쁜 도시의 속도 속에서 흘러

보낸 하루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기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며칠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9월, 하반기의 걸음을 시작하며 같은 비전을 품고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향락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26 오전, 네팔 북부 러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빙하 범람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엄

청한 대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산류 지역에서 순식간에 쏟아져 내려온 거대한 물과 토사는 드리슬리강을 거쳐 하류의 치트완 지역까지 이어지며 수많은 도로와 다리, 주거지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수백 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네팔의 열악한 도로 사정 속에서 재난 지역으로 향하던 유일한 다리마저 유실되었고, 밀려온 토사와 잔해물로 고속도로가 막혀 구조와 복구 작업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27개가 파손되면서 네팔 전역의 전기 공급에 문제

가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며칠 안에 2차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가 이어지면서 현지 주민들과 구호 관계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의 현장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다음 주쯤 복구 상황을 보고 오토바이로 직접 재난 지역을 방문하여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구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네팔에서 함께 웃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박한철 모나카 올림. 우리 시은 자매의 부모님 되시는 박 선교사님께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네팔의 아픔을 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로 시작하는 전도서는 청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허무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고통의 날이 닥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해 아래 사는 현실 속에서든 해 위에서 살아가는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힘센충남이!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계를 이제, 힘센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계특별도  충청남도



# 왜 하나님은 ‘계시’로 자신을 알리셨을까

노휘성 소장  
에스티칭연구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새번역)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계시’ 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뜻을 전하는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시는 방식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세계를 알아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계시뿐입니다. 우리가 위를 향해 더듬어 올라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와 건네주신 것일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에는 한 가지 원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계시 의존적 인간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경험도, 시대의 상식도 계시 위에 앉을 수 없습니다. 계시가 재판석에 앉고 나머지는 그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원칙은 성경의 ‘내용’뿐 아니라 성경의 ‘기원’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창세기를 애굽가-레위기-민수가-신명기(토라)를 가리켜 ‘모세의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음을 여러 번 증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출 24: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하기를 마치고”(신 31:24),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명하신 장면들(출 17:14; 34:27)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신학자나 성도가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다윗 시대에 기록·편집되었다거나, 페르시아 시대 포로 귀환기에 짜맞춰진 것이라는 가설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정말 계시의존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그 판단의 재판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경과 그리스도의 증언입니까, 아니면 그 증언을 검열하는 인간의 이성입니까?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 자체를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계시의 증언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빛 아래서 묻는 것과, 계시의 증언을 인간 이성의 범정에 세워 놓고 그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후자는 계시에 입각한 사고가 아니라, 이성을 계시의 심판자로 앉히는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한 시대 전체가 호응한 공기였습니다.

누가 재판석에 앉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근대(modern)’라는 시대는 흔히 ‘계몽주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계시에서 벗어나 이성이 모든 지식의 기반이어야 함에 눈을 뗐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지성은 계시에 복종하기보다 계시를 이성 아래 두기를 원했고, 그것이 보편적인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의 물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의 기원을 재구성하는 여러 이론들의 밑바닥에는 초자연적 계시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는 이 시대정신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이 증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미 결론을 정해 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만

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성 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는 그분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를 본능처럼 새겨 놓으셨다면 이른바 ‘본유관념’, 모든 사람은 숨 쉬듯 하나님을 알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흔적을 완전히 감추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창조 세계와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롬 1:19-20; 2:15). 그러나 그 일반적인 흔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아는 지식만큼은 우리 이성에서 자동으로 심어 두는 방식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시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시고, 마침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요 1:14) 특별한 계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유는 관계의 본질에 있습니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반응은 사람이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도록 만들어진 기계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배의 반사작용을 심어 두셨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동화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도 ‘엄마 아빠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신령에 새겨진 반사가 아니라, 참된 사랑 속에서 우려나는 신뢰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자유로이 드

릴 수 있을 때에만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프로토콜을 새겨 놓고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를 인식할 수 있고 계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율적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을 ‘계시’로 알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와 ‘믿음’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에만 하나님과 세상의 공극을 알 수 있고(롬 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계시 → 믿음 →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순종은 본능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즉흥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과 권리와 책임을 동반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되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 삶으로 경험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단련될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만약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가 처음부터 이성에서 각인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계적이고 프로그래밍적인 것이 되고 말았

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의 하나님 ‘엘로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독립된 인격으로 상대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상대로 삼으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이름(엘로힘·야훼)이 서로 다른 저자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이름은 본문을 쫓개는 이름매가 아니라, 오히려 한 분 하나님의 두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가 동시에 나 한 사람과 이름을 겹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왜 하나님이 계시로 자신을 알리셨는가라는 물음의 답이기도 합니다.

초월자로 머무셨다면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상대와 인격으로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은 명령어로 조종되지 않고, 말 건넬 때 자유로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지금도 성령을 통해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몫은 그 계시 앞에 이성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창조주와 나눌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 재난과 신앙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교회

네팔-히말라야의 빙하 붕괴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 시대 재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나 존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사고입니다. 빌라도가 신전 제사 때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

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 13:1-5).

주님의 말씀은 이미 죄의 상태는 사고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재난의 현장을 보면서 나는 다행이라 하지만 나도 그와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찾아온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대

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재난과 사고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아는 겸손함과 지금 살아 있음이 은혜의 시간과 기회임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재난을 당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처럼, 바다 폭풍 가운데 바울처럼,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처럼,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다 (롬 5:3-4). 사는 것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서 점점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 네팔의 홍수

이민규 목사  
헤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



며칠 전 네팔에서 일어난 큰 홍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빙하가 무너지며 시작된 거대한 물과 토사의 흐름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는 장면 앞에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슬픔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 단단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언젠가 모든 사람이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만이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마을을 뒤덮는 거대한 토사의 흐름을 바

라보며 십자가를 목상하게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이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그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네팔의 상처 입은 땅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주어진 평범한 하루와 곁에 있는 가족,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 감사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Your True ESG Partner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 재정 지속 가능성은 과제

정부, 국고 지원·보험료 수입 확대 근거로 제시...  
중장기 지출 관리 요구도

정부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국고 지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령화와 진료비 증가가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제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9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09년과 2017년, 2024년, 2025년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다. 건강보험료율은 물가 상승과 수가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해 통상 매년 인상돼 왔다.

정부는 이번 동결의 근거로 현재의 제

정 여건과 국고 지원 확대, 반도체 호황 등을 제시했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30조2000억원으로 약 3.5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 국고 지원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었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보험료 추가 수입은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약가 제도 개편과 검체영상 수가 조정 등을 통해서도 연간 약 2조95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사전설명회에서 “지금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올해 적자 전환 가능성**  
정부의 설명에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던 모습. ©뉴스시스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2025년 진료비 총액은 125조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진료비 지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산정책처는 2028년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동결과 인상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건보노조가 정리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5명은 동결을, 8명은 인상을 주장했다. 제시된 인상 폭은 0.6~1.65%였다.

이번 동결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수입·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복·과잉 진료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오래 진료 중복 검사 관리... “중장기 지출 전략 필요”**

정부는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오래 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반복해서 받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료 상한액을 높이고 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국장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은 방안에 대한 고민만 있고 실행은 부족한 것 같다”며 중복·과잉 진료를 줄여 필요한 곳에 재원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창호 건보노조 전문위원은 “지출 요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지출 조절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정확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산재 사망 줄었지만 질병재해 급증... 건설업 60% 늘어

상반기 질병재해자 2만419명... 근골격계질환이 70.9% 차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업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자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질병재해자가 60% 늘었으며, 질환별로는 근골격계질환이 전체 질병재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9월 고용노동부의 ‘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7만5872명으로 전년 동기 6

만9201명보다 6671명(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120명에서 1049명으로 71명(6.3%) 감소했다.

산업재해는 업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재해와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질병재해로 구분된다. 재해자 수에는 사망자도 포함된다.

전체 산업재해 증가분의 약 84%는 질병재해가 차지했다. 사고재해자는 지난

해 상반기 5만4385명에서 올해 상반기 5만5453명으로 1068명(2.0%) 늘었다. 반면 질병재해자는 1만4816명에서 2만419명으로 5603명(37.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질병재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질병재해자는 지난해 상반기 5998명에서 올해 상반기 9598명으로 3600명(60.0%) 늘었다. 전체 질병재해자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0%였다.

제조업 질병재해자는 4435명에서 5553

명으로 1118명(25.2%) 증가했다.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 ‘기타의 사업’은 2601명에서 3543명으로 942명(36.2%) 늘었다.

질병 종류별로는 근골격계질환이 1만4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질병재해자의 70.9%에 해당하며, 지난해 상반기 9197명보다 5280명(57.4%) 증가했다. 근골격계질환에는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질환과 요통, 사고성요통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질환이 전년 동기보다 3527명(59.6%), 요통이 1538명(82.6%), 사고성요통이 172명(13.4%) 늘었다. 기타 근골격계질환도 139명에서 182명으로 43명(30.9%)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질병재해자는 지난해 상반기 2709명에서 올해 상반기 4057명으로 49.8% 증가했다. 5~49인 사업장은 5763명에서 8209명으로 42.4%, 50~99인 사업장은 1284명에서 1937명으로 50.9% 늘었다.

5인 미만과 5~49인 사업장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의 질병재해자는 1만226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질병재해자의 60.1%에 해당했다.

질병재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질병사망자는 6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1명보다 31명(4.6%) 줄었다.

업종별 질병사망자는 제조업이 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업 173명, 기타의 사업 127명, 건설업 105명 순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광업은 40명, 건설업은 7명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은 각각 6명과 8명 증가했다.

사고재해 역시 재해자는 늘고 사망자는 줄었다. 올해 상반기 사고재해자는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한 5만5453명이었지만, 사고사망자는 449명에서 409명으로 40명(8.9%) 감소했다.

이나라 기자

## 아동 절반 이상 “우리 사회, 아동 의견 존중하지 않아”

아동권리 인식 조사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지를 두고 아동과 성인의 인식이 엇갈렸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성인의 절반은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9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권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아동의 의견 존중과 참여에 관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116명과 성인 289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동·청소년 가운데 우리 사회가 아동

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2.6%였다. 존중한다는 응답은 46.6%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았다.

성인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응답이 50%,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아동·청소년은 부정적인 응답이, 성인은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아동·청소년 72.4%, 성인 64.7%로 집계됐다. 두 집단 모두 과반이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성인보다 7.7%포인트 높았다.

아동·청소년이 가장 덜 지켜지고 있다고 꼽은 권리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응답 비율은 35.3%였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선택한 비율은 33.6%였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 필요한 변화로는 아동·청소년의 38.8%가 ‘어른들의 인식 개선’을 꼽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제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은 21.6%였다.

김유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모든 아동이 오늘도 내일도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일상 속 아동권리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낮춘다

197만명에 연간 최대 8000억원 지원... 고령층·소아 치과 보장 확대

정부가 중증·희귀질환자와 고령층, 소아청소년 등 197만명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완치가 어려운 질환은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 진단과

치료 이력을 고려해 산정특례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건강보험 등재 이후로 전환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등재 소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당뇨병 환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받도록 했다. 자동주입기는 연령 구분 없이 기준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률은 30%에서 10~20%로 낮춘다. 재택관리 대상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당원병 환자의 혈당 관리 소모품과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기도뇨카테터 지원도 늘린다. 65세 이상은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도록 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한다.

충치 치료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연령은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 병원에 대한 추가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하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 행복한 동행

##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망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환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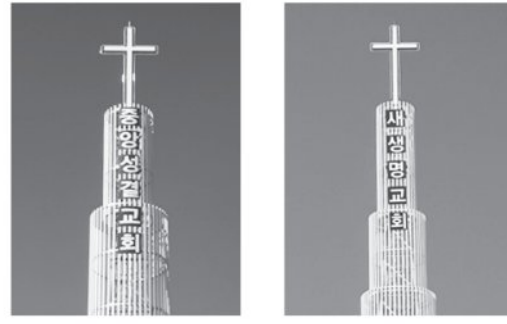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NAVER 검색창에서 **충만기업** 을 치세요!

## 충·만·기·업



- ◆ LED 설치 및 네온수리 전문★
- ◆ 종탑, 종각, 파이프탑 시공
- ◆ 각종 구조물탑 시공
- ◆ 대형십자가, 소형십자가 시공
- ◆ 각종탑 철거, 이전

TEL: 02-802-2005 H.P: 010-5276-9049  
FAX: 02-806-3334 (경남지점) 055-942-10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5-17 / 대표: 정현석 집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다문화복음방송

##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점 목사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L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사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이사이아가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 출발점이 바로 웃사야 왕의 죽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웃사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 역사에서 그 52세를 통치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유다 백성에게 든든한 인간적 의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웃사야 왕이 있다. 그래서' 하다는 생각이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사야가 죽었습니다. 이 무너졌습니다. 의지하던 산이 무너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서 이사이하는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자라날 때, 우리가 의지하던 산, 우리가 불뿔된 권력이 떠나가고, 우리가 의지하던 산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어 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옥규 '맥락이 잡히는 성경 개관'

## 성경의 역사 히브리어의 기원 (1)

## 초기 히브리어 문자

[서론]

성서 히브리어와 관련된 문자는 언제부터 정식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복음주의자들이 주장 하는 대로 모세에 의해 기록된 모세 오경은 어떠한 문자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 기록되었는가?

지난 세기까지 성서 비평 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성서히브리어 문자 체계가 히브리인들이 나 섹족에 의해 모세 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는 믿지 않았다. 반면, 어떤 유대인 학자는 창세기 4:26의 기록중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구절을 마치 문자가 셋의 아들 에녹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지나친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출 17:14의 기록이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도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로수아의 귀에 들리라 -- "

또한 사 814의 기록은 이미 기 드는 시대(주전 11-12세기에 문자의 사용이 대중화 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속국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에 속국 백과 장로 칠십 칠인을 제를 위하여 기록 한지라”. 이 외에도 성서 시대에는 수 많은 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안다. 이를테면 야살의 책(수10:13), 여호와의 전쟁지(단2:14), 유다 왕 역대지략(왕상14:29),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왕상16:5), 솔로몬의행장(왕상11:41),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대상29:29), 선지자 잇도의 주서 책(대하3:22) 등이 그것이다. 성서 시대의 관련된 책들이 자연스럽게 언급된 것을 볼 때, 이들 책은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 두루 사용이 되었으며 문자의 사용이 이미 대중화 되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기록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며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비문들 중 많은 부분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모세 시대부터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심증은 충분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확증할 만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비평학자들은 바사 시대 이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알파벳 문자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결핍과 장문의 비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는 여러가지 뛰어난 방법론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 유명한 유대계 이 탈리아 성서 학자이자 드로시 (Azaria de'Rossi)는 성서의 기록을 포함하는 탈무드 문학을 기초로 하여 성서는 본래 초기 히브리어 서체로 기록되었다고 처음으로 주장했다. 비록 소수 이기는 하나 초기 히브리어 서체로 기록된 기록물들이 발견됨으로 그러한 주장은 더욱 많은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론]

##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과 그 기원

초기 히브리어라는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 히브리어 사체이며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히브리어 문자인 '정방형의 히브리어'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초기 히브리어는 출애굽 전사대에서 주전 6세 기 까지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사용이 된 문자를 말한다. 현대 히브리어와 같이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도 22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이 름들도 현재와 같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등의 정확한 발음은 사라졌다.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른 북부 셈어 알파벳, 특히 초기 페니키아와 초기 아람어와 관련이 되어있다. 모암, 암몬의 알파벳은 초기 알파벳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며 사마리아 알파벳과 주전 2세기 부터 주후 2세기 까지의 유대 동전의 사체는 그것의 방언으로 본다.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은 아마도 히브리민족의 출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가장 초창기 시대에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은 북부 셈어 알파벳과 동일했다.

그러므로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북부 셈어 알파벳의 기원에 관한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초기 가나안 서체는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의 원형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알파벳은 이미 족장 시대에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다의 도장(창 38:18,25)은 초기 가나안 문자였을까, 아니면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의 다른 원형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출28:21, 36을 볼 때 인강에 새기는 것은 아주 초기 시대부터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서 시대에 문자가 사용이 되었으며 그것이 알파벳이라는 견해는 게젤의 농사력과 라기스 문헌이 더욱 뒷받침해 준다. 1938년 라기스에서 발견된 비문(주전 11-12세기)은 초기 히브리어 문자의 기록물이다. 사울 혹은 다윗 시대(주전 1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게젤의 달력은 1908년 게젤에서 발견된 것인데 부드라운 돌판 에 기록된 것이며 10월에 시작되어 8개월의 목록이 있는 것으로 농사를 위한 달력임을 알 수 있다. 학자들에 따라 어떤이는 그것이농부의 작품으로 보는 이도 있고 학생의 연습용 작품 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어쨌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통일 왕국 시대 즉, 주전 1,000년 경에 이미 중앙 행정 체제가 있었을 때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은 존재하고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의 발전 및 고대 문헌

문자들의 발전은 페니키아와 초기 아랍어 알파벳과 같이 외형적인 것이었다. 초기 히브리어 문자가 채용되는 시기에 약 1,000년 동안 그 수와 음가는 동일하였다. 초기 히브리어 문자의 외형적 발전은 다른 서체와 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의 발전은 지속적이었으나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못할 정도로 급진적인 것은 아니었다. 1938년 라기스에서 발굴된 비문은 궁전의 계단에서 발견되었다. 중요한 점은 그 비문에서 초기 히브리어 알파벳의 5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발굴자들은 그것이 학생들의 알파벳 연습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 이것은 알파벳 순서를 위한 가장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가 된다. 단어들의 분리는 점이나 조그만 선을 긋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몇몇의 예외를 제외). 게셀 달력에서는 단어를 분리하는 표시가 없었다. 그러나 보다 긴 선을 이용하여 절들을 분리했다.

메사(Mesha)의 기념비(모압의 비석)는 1868년 디본(Dibon, 사해 동쪽 40km)에서 발견되었는데 승리에 대한 자축이그 내용이며 주전 9세기 중엽의 작품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의를 갖는데 특히 승리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왕하 3:4-27). 주전 9세기의 모압의 언어와 문화는 히브리 민족의 것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모압어는 히브리어의 방언으로 간주된다. 또한 모압 비석의 서체는 초기 히브리어와 연관이 되어있다.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약 80개의 오스트라카 (깨어진 자기위에 잉크로 씌어진 기록물)를 볼 때 북왕국에서는 주전 8,9세기까지의 변형이 거의 완비하고도 볼 수 있다. 그 오스트라카의 대 다수는 한 도시의 왕의 관료들에게 지불된 기름 및 포도주의 조세와 함께 제출된 송장(送狀)이었다. 주전 700년경의 실로암 비문은 유다 방 언어를 나타내주는 반면에 사마리아 오스트라카 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방언의 서체의 본모기를 나타내준다. 실로암 비문은 1880년 6월 몇몇의 학생들에 의해 발견되어 이 스타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비록 6줄 밖에 없지만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념비 비문이다.

그것은 수로를 만든 사람에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왕하 20:20, 대하 32:3-30, 33:14와 관련하여 히스가야가 만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전 700년 경의 작품이다. 이것과 모압의 비석을 비교함으로써 초기 히브리어 기법해 문제가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실로암 비문의 문자들은 초기 히브리어 기법해 문자의 대표적 역할을 한다. 유명한 라비 스 판자(8편)는 1935년 텔 에트 두웨이라(Ed-Duweir)에서 발굴이 된 것이다. 불에

탄 파편에서 오스트라카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시드기야 말기에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도시가 파괴될때(주전586년 경)의 것으로 추정 한다.

## 초기 히브리어 문헌의 중요성

비록 대 다수가 하나 혹은 두개의 단  
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초기 히브리어에  
대한 기록물 의 특성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기록물은 위대한 사건이나 인물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이 기 보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이다. 가장 간단한 기록물조차도 성경 및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과 관습에 대한 우리 지식을 보충해 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예를들면 사마리아 오스트라카는 사마리아의 궁전에 내는 세금과 관련된 기록물인데 포도주와 정제된 기름에 관한 여러가지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언어, 종교 및 주전 8세기 북 왕국에 거주했던 주민드르이 이들에게 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 및 지방 혹은 국가 행정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 언어학 적으로는 그것이 북 왕국의 히브리어 방언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사마리아 오스트라카는 우리에게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방언과 사체에 관한 예를 제공해 주는 한편 다른 대부분의 기록들은 남 왕국 유다의 것들을 보여주는데 예를들면 실로암 비문, 라기스 편지 등이 그것이다. 유대 기록물들은 새로운 단어와 흥미로운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스타일은 순수하며 관공구적이고 마치 성서 히브리어의 산문 형태와도 같은 느낌을 준다. **〈계속〉**

[출처] 더로덤 | 히브리어의 기원 | 작성자  
이종호

바이블지식IN

## 가까운 친척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구약성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관계는 레위기 18:6-18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이스라엘인들은 부모, 의붓 부모, 손주 (암묵적으로, 조부모),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 혹은 자매 (예: 고모, 이모, 숙모, 삼촌), 혹은 의붓 형제자매와 결혼하지 말 것을 명받았

습니다. 사촌 사이의 결혼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가장 초기에는, 제한된 수의 인간이 존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은 종종 불가피했습니다. 지구 상에서 인류가 크게 증가하고 나서야 더 이상 친척들 간의 근친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류의 초기에, 인간의 유전 암호는 오늘날과 같은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는 것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의 자녀의 유전적 기형에 대한 위험성은 매우 적었습니다. 인류가 증가하고, 죄로 인해 인간의

유전 암호는 지나치게 타락하여,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척들의 결혼에 반대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친척간 결혼은 근본적으로 전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유전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결혼에 반대하는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13:1-6). 대부분의 법은 육촌 간의 결혼이 허락되기에 충분히 떨어진 관계로 인정합니다. 결혼

을 고려하는 친척 관계인 커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에 대한 지혜와 신 중함을 주실 것을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5). 커플은 가장 확실히 그들의 가족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야 합니다.

## 갯퀴스천스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하  
모  
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f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승 칼럼 **길갈에서 행한 할례**

여호수아서 연구(5)



권혁승 박사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수 5:2-3)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은 길갈이다(수 4:19). 길갈은 ‘굴러가다’를 뜻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감을 의미한다(수 5:9). 옛 길갈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리고 동편 경계’(수 4:19)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던 위치하였음은 분명하다. 여리고로부터 북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

에 옛 길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것은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그의 책 『유대고대사』제 5권 1장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길갈로 추정되는 지역 부근에서는 지금도 부싯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자신들을 점검한 필요가 있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었다. 그런 마지막 과정이 진행되었던 곳이 길갈이다. 길갈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할례를 시행한 일이었다(수 5:2-9). 여호와께서는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수 5:2). 여기에서 ‘다시’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었다(출 12:43-49). 그런 점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오는 동안 할례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애굽에서 있었던 첫 번째 할례와 길갈에서 있었던 두 번째 할례는 모두가 유월절 절기와 관련이 있다. 애굽에서의 첫 할례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내는 종들과 이방 거류민들도 할례를 받고 나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길갈에서의 할례 역시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 할례를 시행한 후 곧바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었다(수 5:10).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시에 할례를 받은 것은 출애굽 때의 할례와 길갈에서의 할례 두 차례 뿐이었다. 할례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 곧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후손 대대로 지킬 것과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시행을 명령하셨다(창 17:1-14).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고, 출애굽 구원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제 언약의 두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길갈에서의 할례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 그 이상이 있었다. 그것은 길갈에서 행한 할례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행했던 할례와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아브라함이 행한 첫 할례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그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는 신앙 고백이라면, 길갈에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최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최종적 조치였다.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야겠다는 적극적 참여를 선언하는 결단이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할례가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출애굽구원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지나간 40년의 광야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시며 인도해주셨다.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 임국을 앞두고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외적 징표인 할례를 요구하신 것이다. 형식은 쓸데없는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그릇이기도 하다. 형식

은 내용과 구별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형식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모세에게 남아있었던 문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약점을 엄중하게 추궁하신 적이 있었다(출 5:24-26). 모세는 그때의 위기를 심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수 5:9). 여기에서 ‘수치’는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며 겪었던 이스라엘의 낮은 신분을 의미한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신분이 격상된 것이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과제였다.

강지윤 칼럼 **네 잘못이 아니야!**



강지윤 박사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심리적정신적 병의 증세를 알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고질적인 ‘죄책감’과 ‘자책감’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데, 오랫동안 진행된 ‘상한 마음’은 ‘썩 뿌리’가 되어, 자신을 한없이 비하하면서 자책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아주 마르고 창백한 얼굴을 한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 상담실을 방문했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안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오래 받았으며, 여러 곳에서 심리치료를 받아 보았다고 했다. 무엇이 가장 힘든지 물어보았을 때, 계속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책감이라고 말했다. “계속 제가 잘못된 것 같아 괴로워요.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남들은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만 견뎌내는데 저 혼자 이런 것 같고, 저만 문제 있는 사람 같아요. 나에도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 나이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집안 살림살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했다고 했다. 그런 환경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를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 했고, 때때로 자신의 딸에게 분노를 풀어냈다. 이 여성은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으며, 마음속에 큰 분노와 증오를 카우머 살았다. 분노와 증오는 생산적인 에너지를 고갈시켰고, 마음 깊숙이 우울증으로 자리났으며, 그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증·강박증·편집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더욱 커져갔다. 지금 자신이 왜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지, 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지, 왜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런 생각은 곧바로 자기비하적인 자책감으로 이어졌다. “나는 분명 이상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히 살 수 없는 특이한 인간이야. 나는 문제가 많아. 늙고 힘없는 엄

마 아빠를 왜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지? 이 나이에 어른스럽게 이해도 못하고... 난 어린애같이 어리석고 미숙해. 정말 나는 살 이유가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자책감·죄책감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의 하나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치고 이런 자책감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을 혼자 견디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여 비하하게 된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우울증이 생기면 더욱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신앙심이 견고하고 크다면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겼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말도 꺼내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크리스천은 암에도 걸리면 안 되고, 중한 병에 걸리면 다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왜 몸의 병만 이야기하는가. 마음의 병은 거론조차 못하게 하는가. 몸을 잘 돌보지 않고,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몸도 병에 걸려 쇠약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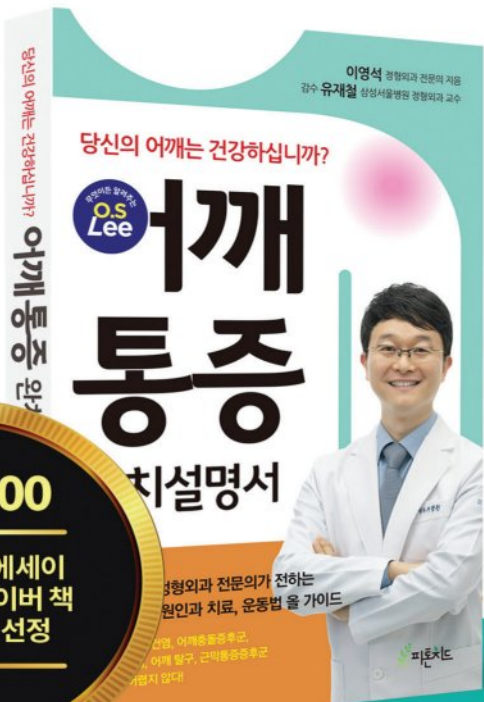
돌보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있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누구라도 마음의 병에 걸린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리고 그분들은 치유의 과정을 통해 치유되었다. 어느 목사님은 새벽기도회에서 자신의 우울증을 늦게 깨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이름 강선영이 세 번 들렸다고 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찾아왔다고 하셨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도 없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도 없다. 마음의 병을 앓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터리 선입견을 여과없이 함부로 말하다 보니, 마음의 상처는 낫지 않고 더 심해지게 되었다.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싶다. 선입견이 죄책감과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네 잘못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아픈 마음은 애초에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사랑결핍증을 앓게 만든 부모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한없이 평생 부모를 원망만 해서도 안 된다. 치유를 이루고 건강한 분화를 이루고 나서 효도하고 섬기면 된다. 그런데 아직 심한 통증이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는 식으로 자책하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고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고 마음은 더욱 아프고 외로워지게 되며, 평생 부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다 나를 때까지 아프면 아프다고, 미우면 밉다고 표현해야 한다. 상처를 줄 정도로 분노를 폭발하지는 말고, 마음속 아픔을 조심히 꺼내야 한다.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구치는 통증이 다 치유될 때까지, 자책을 멈추고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상처가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치유받지 않고 계속 망가진 채로 자신을 버려 두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리고 이후의 인생을 위한 올바른 선택도 아니며, 치유를 결심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회한과 자책을 부를 것이다. 망가진 자신이 또다시 가

까운 사람을 망가뜨리며, 자신도 원치 않는 상처를 전이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내 아버지나 어머니 역시, 그 위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상처를 받아 전이시켰을 것이다. 나의 대에서 이 지긋지긋한 대물림을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물림의 상처는 정말 무섭게 가정 내에 오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이것을 끊어야 한다. 자책하지 말고, 지금의 아픔과 병증을 인정하고, “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치유받기로 결심하면 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신다. 이 말은, “네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이다. 지금 자책이 심하게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이 너무 못나고 형편없다고 느끼는가? 지나온 삶이 모두 후회로 점철되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치유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이다. 치유가 되고 ‘진짜 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되면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디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계

| 2026년 9월 10일 교계단체 일정표                                                     |                                     |                  |                            |
|---------------------------------------------------------------------------|-------------------------------------|------------------|----------------------------|
| 행사 및 소식명                                                                  | 주최 및 주관                             | 시간               | 장소                         |
| 2026학년도 2학기 신학대학원<br>목요강좌 (1강)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13:00            | 서울 강북구 한신대학교<br>서울캠퍼스 컨벤션홀 |
| 제37회 총회 감독선거 제2차<br>합동정책발표회 (서울남연회)<br>※ 중부연회 제2차 발표회도<br>기독교회에서 당일 동시 진행 | 기독교대한감리회<br>(선거관리위원회)               | 14:00            | 서울 영등포구 대림교회               |
| 제14회 생명보듬주일 선포 기념<br>'생명콘서트'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br>라이프호프(LifeHope) 공동 | 19:00            |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               |
| 제8기 평신도 주일학교 지도자<br>세미나 (1강 개강)                                           | 파이디온선교회                             | 19:30 ~<br>21:30 |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br>(ZOOM)     |
| 농어촌교회 섬김의 날<br>일정 시작                                                      | 위지엘(With Jesus<br>Ministry), 비홀드교회  | 20:00            | 자체 운영                      |
| 예수동행 목요집회                                                                 | 위지엘(With Jesus<br>Ministry), 비홀드교회  | 미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비<br>홀드교회      |

2026년 9월 10일(목), 주요 장로교단의 가을 정기총회 개막을 앞두고 교계 연합기관 및 기독교 시민단체, 교육기관들의 공식 일정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일제히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및 학술 부문에서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개교 86주년을 기념해 10일 오후 1시 서울 강북구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2026-2학기 목요강좌' 1강을 개강한다. 첫 강좌는 '다사리 씨알 신학: 제소리로 갠 이들을 주제로 다석 류영모, 신전 합석헌, 심원 안병무의 사상과 한국 에큐메니칼 신학의 실천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교단 내부 선거 일정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서울남연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교회에서 제37회 총회 감독선거를 위한 '제2차 합동정책발표회'를 연다.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김한권 목사가 광역지방회 개편안 및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감

리회 중부연회 또 기독교회에서 2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선거 일정을 이어간다.

문화 및 대사회 사역으로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과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대표 조성돈)가 공동 주관하는 '생명콘서트'가 1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다. 제14회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의 일환으로 기획된 본 콘서트에는 가수 소향 등이 무대에 오르며, 한교총 홍사진 공동대표회장의 인사말과 조성돈 목사의 메시지 전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세대 지도자 양성과 평신도 영성 훈련 일정 또한 저녁 시간대에 이어진다. 파이디온선교회는 10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제8기 평신도 주일학교 지도자 세미나 4주 과정'을 개강한다. 이어 오후 8시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비홀드교회에서 위지엘 주관 '예수동행 목요집회'가 열려 목요 영성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선교

| 2026년 9월 10일 선교단체 주요 일정표                                         |                                                            |                        |                            |
|------------------------------------------------------------------|------------------------------------------------------------|------------------------|----------------------------|
| 행사 및 소식명                                                         | 주최 및 주관                                                    | 시간                     | 장소                         |
| 주성교회 설립 감사예배                                                     | 마라나타연합선교회,<br>주성교회                                         | 11:00                  | 경기도 평택시 교덕로<br>36- 77      |
| 제6회 굿뉴스 콘텐츠 데이<br>'THE PEACE'<br>(창작 찬송 뮤지컬 《My Peace》<br>첫 시연회) | 주최: 굿뉴스컨텐츠포럼<br>기획·제작: 광아아트센터<br>협력: 광아아트미니스트리,<br>케어코너즈 외 | 19:30<br>(입장<br>18:30) | 경기도 성남시<br>선한목자교회 글로리홀     |
| 싱잉 엠베서더스 오브 코리아<br>(SAK) 창단 연주회                                  | 주최: 싱잉 엠베서더스<br>오브 코리아(SAK)<br>주관: 리드예술기획                  | 19:3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br>영산아트홀       |
| 제68회 실행위원회 정기회의                                                  | 사단법인 길목                                                    | 20:00                  | 온라인 화상 회의                  |
| iSchool 가을학기 선교<br>교육 과정 개강<br>(이주민선교학교·창조신앙<br>아카데미: CMN 등)     | 온누리교회 iSchool                                              | 20:00 외<br>과정별<br>상이   | 온·오프라인 병행<br>(선교관 등)       |
| 몽골목회자아카데미<br>운영이사모임                                              | 예장 통합 세계선교부<br>몽골목회자아카데미                                   | 당일 진행                  | 본부 회의실 / 온라인               |
| 사랑 나눔주 선교센터 숙소<br>(가족룸·302호) 예약 개시                               | 아시아먼서(AM)                                                  | 당일 개시                  | 온라인 예약 시스템<br>(amcareland) |

2026년 9월 10일(목), 국내외 주요 선교단체들이 문화 예술 선교, 선교 교육 과정 개강, 단체 실행 회의, 시설 행정 등 각 분야의 사역 일정을 일제히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 및 예술 선교 부문에서는 기독교 콘텐츠 제작 단체들의 신작 시연회와 연주회가 열린다. 굿뉴스컨텐츠포럼이 주최하고 광아아트센터가 기획제작한 창작 찬송 뮤지컬 《My Peace》의 첫 시연회가 10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선한목자교회 글로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광아아트미니스트리, 케어코너즈, 라이트는 워십, 교회진구다 모여 등이 공동 협력하여 진행하며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배경 서사를 다룬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는 12인의 전문 성악가로 구성된 기독교 문화선교 찬양단 싱잉 엠베서더스 오브 코리아(SAK)가 공식 창단 연주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교 교육 및 행정 회의 일정도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산하 교육기관 iSchool은 10일부터 2026년 가을학기 선교 훈련 과정을 개강한다. 이에 따라 이주민선교학교, 창조신앙 아카데미, CMN 수기요법 초급 및 고급 과정의 수업이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예장 통합 세계선교부 산하 몽골목회자아카데미는 당일 본부 회의실 및 온라인을 통해 몽골 선교사역 행정을 조율하기 위한 운영이사 모임을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교회 설립 및 단체 네트워크 분야에서

는 마라나타연합선교회가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교덕로 현장에서 주성교회 설립 감사예배를 주관한다. 기독교 사회선교 네트워크 단체인 사단법인 길목(사협길목)은 오후 8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제68회 실행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체 하반기 사업 계획과 운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교 지원 인프라 및 학술·출판 일정으로는 선교사 멤버케어 기관인 아시아먼서(AM)이 10일부터 사랑 나눔주 선교센터 시설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시한다. 이번 개시를 통해 4인실 규모의 가족룸과 302호 객실에 대한 사역자들의 예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NGO

| 2026년 9월 10일 기독교 NGO 주요 일정표                            |                                                             |                  |                               |
|--------------------------------------------------------|-------------------------------------------------------------|------------------|-------------------------------|
| 행사 및 소식명                                               | 주최 및 주관                                                     | 시간               | 장소                            |
| 서울신학과 함께하는<br>기독교 웰다잉 심포지엄<br>(일일복지재단<br>홍정길 이사장 기조강연) | 서울신학대학교<br>(후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br>총회교육부, (사)각당복지재단,<br>기독교웰다잉학회) | 09:30 ~<br>16:00 | 서울신학대학교<br>성결인의집 존토마스를        |
| باط퍼나눔운동 38주년 기념<br>'باط퍼 1,500만 그릇 돌파<br>감사축제'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10:00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br>باط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 |
| 2026년도 하반기<br>만영장학회 장학생 선발<br>심사위원회                    | 구세군만영장학위원회<br>(구세군 대한본영)                                    | 15:00            | 서울 종로구 구세군<br>대한본영 회의실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 목사)은 2026년 9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바파트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باط퍼 1,500만 그릇 돌파 감사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988년 청량리 일대에서 라면 한 그릇 나눔으로 시작된 바파트나눔운동의 3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다. 다일복지재단은 2017년 1,000만 그릇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누적 급식 1,500만 그릇을 돌파함에 따라, 10일 현장에서 후원자 및 봉사자들과 함께 기념식을 진행하고 무료 급식 배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술 및 장학 복지 분야의 실무 일정도 같은 날 진행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

기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집 존토마스를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주최로 '기독교 웰다잉 심포지엄'이 열린다. 기독교 복지 NGO인 일일복지재단의 홍정길 이사장은 오전 세션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죽음 앞에서의 묵회적 돌봄과 영적 케어, 재림신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세군 대한본영 산하 구세군만영장학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구세군 대한본영 회의실에서 '2026년도 하반기 만영장학회 지급대상 심사 및 선발 실무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접수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 선발을 확정하며, 최종 결과는 익일인 9월 11일 오후 2시 공식 카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니엘 최 기자

충현선교교회 ‘2026 새일세계선교대회’… 10월 1~4일, 17개국 선교사 초청

충현선교교회가 오는 10월 1일(목)부터 4일(주일)까지 '2026 새일세계선교대회'를 '역사를 넘어 새일을 향해'(사 43:19)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충현선교교회가 파송하고 섬겨온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서남아시아, 멕시코, 인도, 페루, 인도/말리, 볼리비아, 러시아, 인도문화권, 방글라데시, 우간다, 스페인, 동북아시아, 히스패닉 문화권, 태국, 튀르키예 선교사 등 17개국 선교사 32명과 5명의 자녀, 모두 37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선교대회는 충현선교교회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교회와 선교사들이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교대회 이후, 10월 5일(월)부터 9일



(금)까지 선교사 수련회가 이어져, 선교사들이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섬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선교사와의 식사를 비롯해 선교 패스포트(Passport) 투어, 문화 체험, 게임과 다양한 체험, 어린이 및 가족 프로그램, 페이스 페인팅, 풍선공예, 대형 놀이기구, 축하공연이 준비된다.

충현선교교회는 교회 소식지를 통해,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한 이유와 선교대회의 주제,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서 국

윤권 담임목사와 나눈 인터뷰를 소개했다.

2026 새일선교대회에 대해, 국윤권 목사는, 2019년 '선교사 파송 3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이후 7년 만에 이번 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선교의 사명을 되새기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선교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 현장에서 헌신해 온 선교사와 그들의 가정의 휴식과 재충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선교사들을 위한 LA 투어, 전문 건강검진(카이로프랙틱·한방·안과), 가족 관계 회복 및 영육간의 치유를 위한 정신 건강 세미나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매일 저녁 선교 부흥회가 진행되며, 주일 오후에는 선교박람회가 열린다. 17개 선교지의 다양한 문화와 생생한 사역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회측은 이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행사의 성공 자체보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교회로 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과 "우리가 여러분의 사

역을 기억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선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현선교교회의 새일세계선교회는 1985년 8월 11일 교회설립과 동시에 선교위원회 조직되면서 설립되었다.

1989년 10월 1일 안영수·이상희 선교사 부부를 과테말라에 첫 선교사로 파송한 이래, 2026년 현재까지 누적 35개 지역에 선교사 91명을 파송했다. 현재는 18개 지역에서 파송 선교사 35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 AI 목회 활용… 설교·교회행사·이미지·교육자료 등

## 한신대, 제5회 한국기독교교장로회 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7-8일 이틀 간 제5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한신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의 120여 명의 목회자가 함께 한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목회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 교회 행사 기획, 이미지 생성, 교육자료 제작, LLM 활용, AI 목회 전략 등 여섯 분야의 실습형 선택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 속에서 목회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소개받는 데 그치지 않고, 설교와 교육, 교회 행사, 콘텐츠 제작, 목회 기획 등 실제 사역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선택강좌는 △설교 준비하기(신동교회 이동진 목사) △교회 행사 계획하기(예담교회 서평원 목사) △이미지 생성하기(서수교회 전재기 목사) △교육 자료 제작하기(충주서남교회 원동경 목사) △Gemini

Notebook 활용하기(옥봉교회 이용진 목사) △AI를 활용한 목회 전략(부천교회 조규남 목사)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이틀 동안 총 다섯 차례의 선택강좌 시간에 자신의 목회적 필요와 관심에 따라 강좌를 선택해 참여했다. 한신대학교 목회자 컨퍼런스는 2022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5회를 맞았다.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과제들을 목회적,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해 제4회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한 목회 디자인하기’를 통해 AI와 신학·목회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뤘다면, 올해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목회자가 직접 AI 도구를 사용하고 사역에 적용하는 실천적 교육을 강화했다. 한신대학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한국기독교교장로회 목회자들이 시대의 변화를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목회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목회자 컨퍼런스와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한신대 제5회 한국기독교교장로회 목회자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고신대 개교 80주년 기념식 모습. ©고신대

## 고신대, 개교 8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데이 개최

고신대학교(총장 이정기)가 최근 영도캠퍼스 한상동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행사 1부 기념예배는 이신열 교목실장의 인도로 윤창현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의 기도, 임병애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장의 성경봉독, 최성은 고신총회 총회장의 설교, 황만선 전 고려학원 이사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기념식에서는 유학생 난타 공연과 학과별 깃발 입장, 케이

크 커팅식이 이어졌다. 이정기 총장의 기념사와 이상일 고려학원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조승환 국회의원, 진상원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24명의 교직원 이장기근속 표창을 받았다. 기관별 수여식에서는 김신용 입학관리팀장이 총회장상을, 백광석 신학대학원 관리팀 계장이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허정호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총장상을, 최수현 총학생회장은 총동문회장상을 받았다. ‘2026 자랑스러운 고신대인상’은 노정희 선교사(목화·선교), 민형래 선교사(사회봉사·의료), 임창호 교장(교육·문화·예술)이 수상했으며, 학과별 동문 19명에게는 특별공로상이 수여됐다. 과거 전산수학과에 재적했던 배우 임지규 씨에게는

명예학사학위가 수여됐다. 3부 행사에서는 태권도학과 사범단과 남성중앙단 ‘삼손중앙단’의 공연, 교무위원들의 이벤트, 교가 제창이 진행됐다. 행사 종료 후에는 영도캠퍼스 내 ‘은혜동산’에서 80주년 기념식수가 열렸다. 고신대 측은 대학혁신지원사업 8년 연속 선정 및 A등급 획득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 조지아센추럴대학교, 달라스서 ‘성경교사 Certificate 프로그램’ 운영

교회 지도자 위한 체계적 신학·성경 교육… 2년간 42 학점 과정

조지아센추럴대학교(총장 김창환 박사, Georgia Central University)가 달라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와 성경 교사를 위한 ‘성경교사 Certificate 프로그램(Biblical Teacher Certificate Program)’을 시작한다. 오는 10월 6일 개강해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과정을 제공하는 만큼, 관심있는 성도들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측은 점차 각 캠퍼스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작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저변을 넓혀갈 방침이며, 지역 교회들과 동역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역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회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평신도 지도자와 사역자들에게 체계적인 신학 및 성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과정은 2년간 총 42학점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한 학기에 세 과목씩 진행되며, 각 과목은 90분 강의로 10주간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학기별 실라버스와 강의안에 따라 필독서 독서과제와 학기말 시험, 개인 과제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 측은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ATS와 ABHE 인증을 받은 대학 신학과의 Certificate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크게 신학 과목 15학점, 성경 과목 18학점, 선택 과목 6학점, Spiritual Leadership Training 4학점으로 구성된다. 신학 영역에서는 기초신학과 역사와 전통, 실천신학 등을 다루며, 성경 영역에서는 성경해석과 구약 및 신약 연구를 공부한다. 신학과목에서는 삼위일체와 신학, 구원과 종말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신론 등 기초신학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신학



의 틀을 구축한다. 또한 종교 개혁사(교회사)를 통해 기독교 전통과 역사적 흐름을 연구하며, 실천신학에서 전도와 선교, 기독교 영성, 기독교 교육 등 사역 현장의 실재를 배운다. 성경 과목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해석을 바탕으로 모세오경과 역사서, 대전지서 및 소전지서 등 구약의 주요 영역을 공부하고, 신약에서는 4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일반서신 및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 신약의 정수를 배우고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구성됐다. 선택 과목은 예배학 및 성경적 리더십, 기독교 윤리와 사회, 결혼과 가정사역, 제자 훈련 및 사역,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신학, 성경적 상담 및 치유, 글로벌 선교전략, 타문화권 의사소통, 평신도 사역 및 리더십 가운데 학생의 흥미와 사역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지식이 실력이 되는 핵심과정”인 Spiritual Leadership Training을 통해 수강생들은 체플 및 소그룹 인도 실습을 통해 이론을 넘어 실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체플을 인도하고 소그룹을 어떻게 양육할지 교회 리더십에 대한 실천적 과정을 훈련 받게 된다. 교수진에는 구약신학의 이준희 박사와 최재만 박사, 신약신학의 이강택 박사와 김도현 박사, 조직신학의 방삼석 박사, 교회사의 객계일 박사, 실천신학의 신지훈 박사 등이 참여한다. 교수진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McMaster Divinity College, Yale University, Vrije Universiteit 등에서 신학을 연구한 학자와 현직 목회자들로 구성됐다. Certificate 과정 이후 학부 과정으로 진학할 경우의 학점 연계 과정도 마련돼 있다. 안내에 따르면 C-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과목은 학부 프로그램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경신학·세계선교 관련 기초과목을 이수하면서 향후 학위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희 기자

## 푸른나무재단, ‘2027 UN 청소년 대표단’ 스피치 대회 참가자 모집

10월 12일까지 만 16~24세 지원… 대상 수상자 뉴욕 파견 경비 지원



BTF푸른나무재단(상임대표 이종익, 설립자 김종가)이 오는 10월 12일까지 ‘2027 UN 청소년 대표단 선발 스피치 대회 로드 투 UN’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국제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이 국제무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에 관한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속 학교와 관계없이 만 16~24세 청소년이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는 ‘AI 시대, 청소년이 안 본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UN 구두성명문 발표와 동일하게 3분 이내의 영어 발표를 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 대회와 시상식

은 11월 7일 오후 3~6시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최종 선발자는 2027년 제10기 UN 청소년 대표단으로 활동하며, 내년 2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제65차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분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대표단 자격과 표창, 뉴욕 UN 본부 파견 및 1000만 원 상당의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최우수상 2명에게는 대표단 자격과 표창을, 우수상 7명에게는 대표단 서류전형 면제 혜택과 표창을 제공한다. 이외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장려상을 수여한다. 대표단에는 재단이 개최할 예정인 UN 포럼에서의 발언, 각종 대사·국제기구 전문가와의 교류, 해외 대학 탐방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요한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 올라가라, 더 높은 곳으로!



한평우 목사

신앙을 평생 올곧게 지켜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는 결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기도 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다. 부자 청년이나 데마처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이탈리아의 북쪽 피아첸차(Piacenza)에 갔다가 그곳에서 멀지 않은 토리노(Torino)의 깊은 계곡 앙그로나(Angrogna)를 방문했다. 그곳은 신앙에 목숨을 걸었던 왈도파(Waldenses-이탈리아에서는 '발데제'라고 함, 1170)가 자리한 곳이다. 알프스 산자락을 등진 작은 도시로, 그 옛날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들어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그들은 오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락한 삶을 던져 버리고 깊은 계곡으로 들어와, 높은 산자락의 경사진 비탈을 일구며 살았다. 지금도 그들은 조상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그 터를 올곧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 깊은 골짜기를 소중히 영적 유산으로 지켜가면서 말이다.

왈도(Peter Waldo, 1140~1218)는 본래 프랑스의 리옹 사람으로, 장사로 큰돈을 벌었다. 그는 어느 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가톨릭 수사를 고용하여 라틴어로 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했다.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기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다. 일반인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였으니, 그로부터 무려 700년 전의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제가 라틴어로 전하는 설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추측하거나 더듬어 이해해야 하는 정도였으므로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왈도는 성경을 직접 읽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번역역을 결심했다. 그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당국에서 알게 되면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화형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갈급함은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버렸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런 일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니 말이다. 그는 드디어 프랑스어로 완역된 사복을 서를 읽을 수 있었고, 크게 감동했다. 그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왈도는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되었다. 성경 외에 비록 교황의 말일지라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는 즉시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누가 복을 10장 말씀대로 시행했다. 즉,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켰고, 자신을 좇는 자들에게도 지키게 했다. 그는 제자들을 성경대로 두세 사람씩 짝지어 전도자로 파송했다.

왈도는 파송한 전도자들에게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작은 행상을 겸하도록 했다. 그것은 아주 초라한 행상이었다. 실과 바늘, 머리빗, 여인의 장신구, 옷핀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팔아 생계를 해결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어떤 의미에서 자립 전도였다. 고달프지만 순박하기만 한 시골 사람들, 가난하지만 한없이 순수하고 때문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전도자들은 깊은 산골의 초라한 마

을들을 집집이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물건도 팔았다.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 관심으로 돌보는 전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파격적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들은 펼쳐놓은 물건을 보인 후에, "또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시작한 복음 운동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세상을 삼시간에 불붙게 했다. 마치 무더운 여름철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13세기에 시작한 복음 운동, 이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한 미미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돈도 조직력도 후원자도 없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작고 미천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그 결과, 그들의 복음 운동은 프랑스, 스위스, 중부 독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중부 이탈리아까지 활화산처럼 옮겨붙었다.

그 운동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 복음의 종자가 되고 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들을 종교적으로 용인한 19세기 중반까지, 이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달픈 삶의 오솔길을 걸어 가야 했다. 이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 때때로 알프스 계곡을 흐르는 강물을 피로 빨갛게 물들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무려 600년 동안 산속에서 약전고투하면서 버텼고, 계속된 핍박으로 무려 2백만 명이 상이 피를 흘려야 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이들의 생활수칙은 오늘날 우리가 본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가정예배 그리고 잦은 집회였다. 그들이 모여 예배드렸던 동굴과 공부했던 신학교,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예배드리기를 작정한 탐은 지금도 깨끗하게 남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도전하고 있다. 그곳을 지키는 왈도파 장로님은 말한다. 그 옛날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프랑스어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주일에는 프랑스어로 설교를 듣고 있으며 무려 600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 오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프랑스 말을 모르는 사람은 왈도파와 관계없는,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이들이 과거 살았던 계곡의 은신처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날 성도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 웅변을 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의 낭만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그 먼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바보스럽게 짊어졌던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는지 모른다. 또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야말로 바보 같다고 여기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신앙은 결코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다. 왈도파의 선배들이 비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던 땅속 바위굴로 히리 숙여 들어가던 중, 바위에 이마를 콕 찡고 말았다. 허리를 덜 구부렸기 때문이었다. 종일토록 바위에 부딪힌 이마가 아팠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너는 허리를 더욱 구부려라, 주 앞에서"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35년째 시무하시고,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창립팀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 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 찬미와 감사의 사람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103:1,2)



김영국 목사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한 중요한 정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과 그가 주시는 은택을 헤아려 알고 만족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겪는 신앙생활이 마침내 하늘의 보상을 실감하기까지는 고통스럽게 견뎌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과 규제로 이루어진 기쁨이 없는 여정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아무런 기쁨이나 찬송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찬양과 감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에 대한 개인적 감사의 답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

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매일의 은택에 대하여 구구함을 받은 창조된 존재로서의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만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의욕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수많은 은택을 기억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3편에 기록된 그러한 “은택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온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데도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와 공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



도다 자주 경쟁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

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

역하심이로다”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평신도 제사장들(believer-priests)은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하나님께서 모든 평신도 제사장들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제물은 찬양과 감사와 선행과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13:15-16)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

는 영적 제물 가운데 하나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재능의 헌물(gift-offering)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의 가장 진솔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찬미와 감사가 우리 모두가 열매이기 쉬운 우울함과 자기연민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일상의 해독제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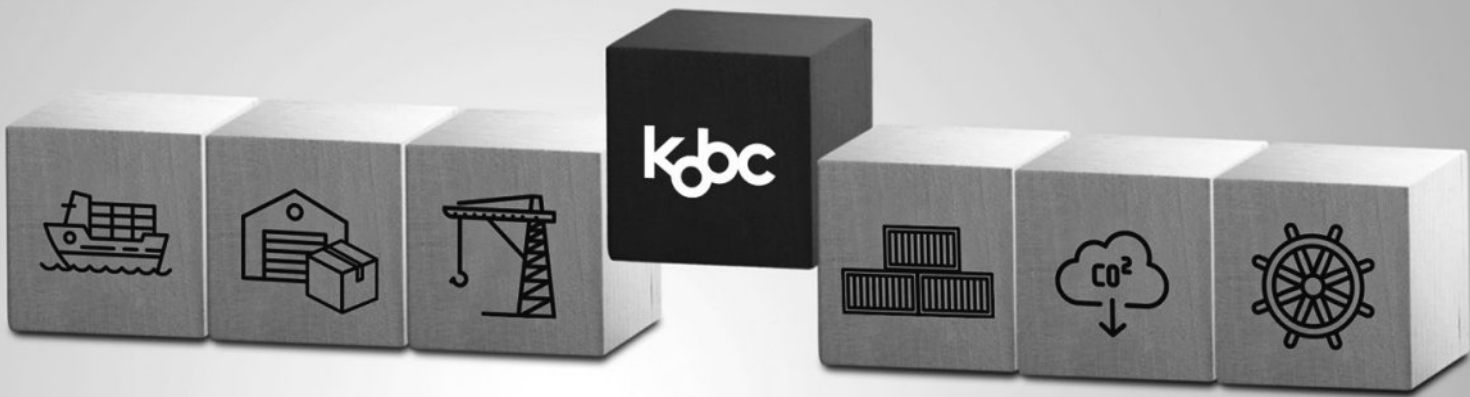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 Thomas Ken  
“찬송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곧 만복의 원천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출처 : Kenneth W Osbeck의 Devotional Warm-Ups / 번역 : 김영국 목사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 스물 다섯 번째 싱글 발표한 시편 150 프로젝트

시편 150 프로젝트가 스물다섯 번째 싱글 시편 25편 One Wish를 발매했다.

시편 150 프로젝트는 구약성경 시편 150편을 새로운 찬양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시작했다.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시편 1편 북 있는 사람은(feat. 한수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편의 시편을 음악으로 선보였다. 이는 전체 목표의 16.6%에 해당한다.

프로젝트는 시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찬양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시편 25편을 노래한 이번 앨범에는 다양한 대중음악 분야의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대표 여성 보컬리스트 백지영을 비롯해 빅마마의 박민혜, 밴드 몽니의 보컬 김신의, 울랄라세션의 메인보컬 김명훈, 이진이 등이 처음으로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앞서 프로젝트에는 이승철, 에일리, 김태우, 뱀키, 선예, 송지은, 박기영 등 대중 음악계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V.O.S의 박지현은 시편 8편과 12편에 참여한 뒤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을 때는 그게 될까 싶었는데 한편 한편 완성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게 되겠구나 싶었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편 25편 One Wish ©인피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찬양을 녹음한 아티스트들도 있다. 에일리는 시편 7편을 통해 처음으로 찬양 앨범을 녹음했으며, 크로스오버 그룹 레데아모르의 박현수는 시편 13편을 두고 “솔로로 녹음한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올려드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첫 찬양”이라고 고백했다.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찬양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25편의 싱글에는 대부분 서로 다른 작곡가들이 참여했으며, 기존 작곡가뿐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게 된 신예 작곡가들도 있다.

시편 공모제 시즌3는 시편 29~40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마감됐다. 프로



시편 150 프로젝트 Vol. 3 - 이승철 ©인피니스

젝트 측은 향후 공모를 통해 40편 이후의 시편을 소재로 한 창작곡도 모집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해당 시편 말씀의 한 구절 이상을 가사에 인용한 창작곡이어야 하며, 음악 장르에는 제한이 없고 여러 작품을 중복 출품할 수 있다.

프로젝트 측은 올가을 그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수들이 함께하는 오프라인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시편 150 프로젝트는 앞으로 시편 150편 전체를 새로운 찬양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발매된 앨범은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 ‘돌아볼까’를 통해 뮤직비디오도 공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 안양필, 러시아 음악으로 가을 무대 연다

10일 안양아트센터서 정기연주회…박인수 지휘·최수현 피아노 협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연주

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박인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최수현이 협연한다.

연주곡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Op. 30’,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5번 e단조 Op. 64’다.

이번 공연은 관현악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을 통해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조망한다. 최수현이 협연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은 고도의 연주 기교와 치밀한 해석, 깊은 서정적 표현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이번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선보이고, 오케스트라와 관객이 러시아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 피아노 음악에 집중해 온 최수현 협연**

최수현은 뉴욕 카네기홀의 메인 홀인 아이작 스티븐 오티토리움에서 뉴저지 필하모닉과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협연했다. 공연 소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지 평론가는 그를 “거장의 테크닉, 깊은 터치, 가슴을 울리는 표현력을 가진 연주자”라고 평가했다.

계열이고 재학 중 유학길에 오른 최수현은 캐나다 왕립음악원에서 보리스 리센코(Boris Lysenko) 교수에게 사사했다. 러시아 피아니즘의 전통을 바탕으로 음색과 터치, 음악적 표현과 해석, 원소 타건법 등을 익히며 러시아 피아노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 기반을 다졌다.

2004년 뉴욕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클리블랜드 음대 최고연주자과정(Artist Diploma)을 1년 만에 마쳤다. 2018년에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같은 해 귀국한 뒤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W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협연했다. 음악 전문지 ‘음악지평’에 ‘최수현의 문화 포커스’를 연재하며 음악평론가로도 활동했다. 현재 햇빛트리나터신학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회음악 지도자 및 최고연주자과정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박인수 지휘로 무대…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8년 8월 박인수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창단된 전문 민간 교향악단이다.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활동해 왔다.

박인수 지휘자는 안양초·안양중·성남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독일로 건너가 뮌헨 국립음악대학원에서 공부했다.

귀국 후 광주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주자와 전주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광주시향에서 정년퇴임한 뒤 영국에서 지휘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유튜브 채널 ‘Pianist Soohyun Choi’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해외 관객들도 온라인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한다우리 예술기획이 주관하며 안양시가 후원한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며, 단체·학생 할인석은 1만 5000원이다.

다니엘 최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간    | CTS 기독교TV                                                      | Good TV                                                                 | CGN TV                                                                               | CBS TV                                                                        | Cchannel                                                                     |
|-------|----------------------------------------------------------------|-------------------------------------------------------------------------|--------------------------------------------------------------------------------------|-------------------------------------------------------------------------------|------------------------------------------------------------------------------|
| 05:00 | 00 TV새벽예배 만나교회<br>40 하나님의 손길                                   | 20 365 새벽기도                                                             | 0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10일<br>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10일<br>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 00 산정현강단(장재우)(1024회)<br>30 TV강단 감사드림(차영아)                                     | 10 강연소 통(78회) 상처는 하나님 손에서 스며이 된다                                             |
| 06:00 |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대구범어·장영일/이지훈<br>30 생명의 말씀 동안-김형준                 | 10 GOODTV 오늘의 기도<br>20 행복한 삶터 여의도순복음은혜(이태근)<br>50 GOODTV NEWS           | 10 [말씀] 김주환 목사(하브교회)(12회)<br>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89회)                             | 00 생명의 양식 서산성결(김형배)<br>30 한소망 말씀 (최종규)(179회)                                  |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br>40 성경 속 인물사                                             |
| 07:00 | 00 CTS뉴스<br>20 생명의 말씀 계산제일-권오규<br>50 생명의 말씀 수지 기쁨의-김원태         |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br>20 사랑의 메시지 수원순복음(이요한)<br>50 비전설교 대한 (윤영민)         | 30 휴먼내컷(81회)                                                                         |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45회)<br>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42회)                      |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황덕영 목사                                                       |
| 08:00 |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br>40 서정희의 매일성경(134회)                       |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br>30 채인지 더 월드 케나 펜서(부재일교회_김한원 목사)                    |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10일<br>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236회)               | 00 하나님의 음성(27회)<br>20 CBS 성서학당 (이석)(4556회) 성서 속으로 Go Go! 18강                  | 00 복음강단 예배그리고길 김학필 목사<br>30 말씀의 창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정은 목사                           |
| 09:00 | 00 원더풀우먼(45회)<br>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열왕기 7장         | 30 행복한 삶터 아벨포이 (임동현)                                                    | 0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66회)<br>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4회)<br>50 구약의 세계로 (오소산)2(32회)       | 10 새롭게하소서(11116회) 박경민 선교사 1부                                                  |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업(62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br>40 믿음의 리액션(27회) 양평 1              |
| 10:00 |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 20 RE바이블(45회)                                                                        | 00 CBS NEWS 10<br>20 잘 믿고 잘 사는 법(353회)<br>40 목사님 궁금해요(173회)                   | 20 성지가 좋다(546회) 사해, 베다니 세례터<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
| 11:00 | 00 7000마라톤-예수사랑여기에 위임 맡기 / 문창식 목사<br>50 신앙예배시                  | 00 사랑의 메시지 전주완산 (유병근)<br>30 사랑의 메시지 남서울중앙(피종진)                          | 10 [말씀] 윤민선 목사(은혜생물교회)(284회)<br>50 Q&A 107 소요리문답(24회)                                | 00 올포월(770회)                                                                  | 00 소문난 성경교실(753회) 이기철 목사<br>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201회)<br>50 말씀의 창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
| 12:00 | 00 CTS뉴스<br>30 생명의 말씀 경산중앙-김종원                                 | 00 GOODTV NEWS<br>2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br>30 행복한 삶터 운유한 (박경숙)              |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4회)<br>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546회)                              | 00 TV강단 오병아(권영규)<br>30 오직예수 (이영훈)(967회)                                       | 20 복음강단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br>50 비전메시지 바른교회 조정현 목사                                |
| 13:00 | 00 생명의 말씀 통성환-김성곤<br>3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br>40 서정희의 매일성경(134회)   | 00 사랑의 메시지 안영성명나루 (손영숙)<br>30 사랑의 메시지 창산성결 (석진성)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114회)<br>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70회)                          |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12회)                                                       | 30 김재현의 광야예찬(31회) 텐트 폴 하나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라 제간 확장                               |
| 14:00 | 00 [생방송]Calling GOD(2567회)<br>50 내가 매일 기쁘게(3568회) 김효연 작가       | 00 GOODTV 특별간증                                                          |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10일<br>20 [말씀] 최민준 목사(안양제일교회)(358회)              | 00 말씀의 힘 우연동(정준경)<br>30 새롭게하소서(11490회) 윤시영                                    | 20 풀다보면(35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아테네, 고린도                                         |
| 15:00 | 40 7000마라톤-예수사랑여기에 위임 맡기 / 문창식 목사                              |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 00 [말씀]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29회)<br>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10일                                 |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554회) 마태복음 47장                                             | 0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
| 16:00 | 30 생명의 말씀 신촌성결-이정익/박노훈                                         | 00 행복한 삶터 소성 (강복렬)<br>30 행복한 삶터 대구동신 (문대원)                              | 00 하용조 목사의 오후복음 강해(63회)<br>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4회)<br>50 [말씀] 김형익 목사(반sal롬교회)(440회)     | 10 맨투맨 터치2(2회)<br>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33회)<br>50 하나님의 음성(27회)                    |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75회)<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
| 17:00 | 00 생명의 말씀 새미앤-소강석<br>50 빛으로 소금으로                               |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br>1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br>40 아베스의 기도          | 30 [말씀] 양춘길 목사(빛그림선교회)(633회)                                                         |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41회)<br>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2043회)<br>50 영혼의 양식 성경통해(김주철) | 00 말씀의 창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br>30 말씀의 창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
| 18:00 | 00 생명의 말씀 소명중앙-김대성<br>30 TV찬양예배 만나교회                           | 10 비전설교 대전태평 (한상현)<br>40 더 깊은 울림 마커스 워십                                 | 10 THE NEW 하늘빛항가 (26회)<br>50 2026 KOSTA WORLD IN SEJONG(3회)                          |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br>30 산위약마를 예배 (김영준)(299회)                                 | 2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br>30 말씀의 창 엘드리교회 안병재 목사                                     |
| 19:00 |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br>3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69회)               |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 50 2026 KOSTA WORLD IN SEJONG(3회)                                                    | 20 CBS 교회소식(1067회)<br>30 TV강단 예월(정준주)                                         | 00 비전메시지 광주새성안교회 김시은 목사<br>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443회) 김하나 목사                   |
| 20:00 | 30 생명의 말씀 강남중앙-장찬영                                             |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br>10 여중생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br>40 노크토크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10일<br>20 레디온(201회)                                      | 00 성령의 시대(58회)<br>50 말씀의 샘 대한성공회                                              | 10 비전메시지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br>40 복음강단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
| 21:00 | 00 매신저스 남민 목사<br>30 서정희의 매일성경(134회)<br>50 CTS뉴스                | 40 GOODTV NEWS 12세                                                      |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2026년 09월 05일                                                         | 00 CBS 성서학당 (이석)(4556회) 성서 속으로 Go Go! 18강<br>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60회)            |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216회)                                                        |
| 22:00 |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열왕기 7장 전원 희 목사                  | 00 다니엘 기도회                                                              |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10일<br>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50회)                   | 00 CBS NEWS 10<br>20 CBS 스페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개관식(51회)                              |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202회)<br>20 소문난 성경교실(750회) 이기철 목사<br>50 라바이즈 워십             |
| 23:00 | 10 [CTS믿음의 명작] 4인 4색 흥민기 교수 1강                                 |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br>10 내 마음의 문을 열고<br>10 명사들의 명강<br>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 1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264회)<br>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10일<br>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4회)           |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종인들(32회)<br>30 잘 믿고 잘 사는 법(353회)<br>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42회) | 00 풀다보면(35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아테네, 고린도<br>40 성경 속 인물사(23회) 꽃, 파리가 떠나지 않은 여인    |
| 00:00 | 00 Calling GOD(2567회)<br>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10일<br>20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순례기)(7회)                     | 10 새롭게하소서(11116회) 박경민 선교사 1부                                                  | 00 강연소 통(78회) 상처는 하나님 손에서 스며이 된다<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
| 01:00 | 00 더 초존 시즌1(더빙)(4회) 15세<br>50 박세현의 크로스뷰(26회)                   | 10 조용기 목사, 명성교                                                          | 00 [말씀] 김우성 목사(영락교회)(274회)<br>4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27회)                             |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13회)<br>40 말씀의 능력(전태식)(599회)                               | 00 고품격 크리스천 처트 토크쇼 : 차복(34회) 성경 속 질병 이야기<br>30 성지가 좋다(546회) 사해, 베다니 세례터      |
| 02:00 | 10 7000마라톤-예수사랑여기에 위임 맡기 / 문창식 목사                              |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37회)                                                          | 30 TV강단 강남중앙침례(최병락)                                                           | 00 우리 함께 찬양해(27회) 목동성결교회 1부<br>40 김병상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46회)        |
| 03:00 |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열왕기 7장<br>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 10 GOODTV 특별간증                                                          |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238회)<br>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77회) | 00 올포월(769회)                                                                  |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
| 04:00 |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준순 목사<br>30 내 영혼의 찬양                            |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한국중앙 (임석순)<br>30 새벽을 깨우는 기도<br>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265회)                                                         | 00 CBS 성서학당 (최주훈)(4555회) 영화로 읽는 그라스도의 생애 19강<br>50 CBS 교회소식(1067회)            | 00 클래식 말씀의 창(18회) 김진오 목사<br>30 성지가 좋다(546회) 사해, 베다니 세례터                      |